



성도의 벗 1
1973



영감의 메시지

하트만 렉토 이세 장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죽게 되면 갑자기 인격의 기적적인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불변합니다. 우리는 죽는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와 같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말 34 : 33~34 참조)

경전은 영의 세계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낙원이고 다른 하나는 영옥이라고 말해 줍니다. 사실상 영의 세계는 둘이 아니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로 가게 될 때 어떤 곳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지상에서 처해 있는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약이나 나쁜 습관이나 사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곳에 가게 된다면 그곳은 영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영의 세계에서 회개는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기란 훨씬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회개에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렇듯 완전한 회개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잠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지상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 사람은 모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15 : 20~22 참조) 그들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찌되던 그들은 다시 살게 되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부활할 때 그들이 처할 상태는 그의 보상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더러운 자는 더러운 상태로, 의로운 자는 의롭게 부활을 맞게 될 것입니다. (나이 9 : 16 참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준비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우리와 영의 세계에 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고, 이로써 우리가 자유로운 영으로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 우리에게 마련된 새로운 지식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의로운 자의 부활을 통해 보다 높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순서

	영감의 메시지
1	편집자 란
2	프로보 신전 헌납 기도문
8	휴 비이 부라운
10	에드윈 그린로우
12	스펜서 더블류 킴볼
14	보이드 케이 팩커
17	
21	버지니아 마세이
23	
24	부르스 아아르 맥콩키
26	마벨 존스 개봇
29	
30	존 에이치 반덴버그
33	로버트 엘 심프슨
36	빅타 엘 부라운
39	에이치 버크 피터슨
41	
46	
	영감의 메시지
	편집자 란
	프로보 신전 헌납 기도문
	선교사와 그가 전하는 메시지
	방
	자신을 속인다는것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나?
	질의 응답
	농부와 수탉 셋
	수수께끼
	친구가 친구에게
	물론
	정책과 절차
	평화는 언제 오게 되나?
	사랑의 재판
	아론 신권 - 특정한 기초
	가정에서 모범을 보임
	쥘쎌 에프 스미스 : 가족과 세대차
	내외 소식
	선교부장단 메시지

이달의 표지 : 1972년 4월 대회에서 십이사도 보조로 지지된 존 에이치 반덴버그 장로와 로버트 엘 심프슨 장로(상단).
 선임관리감독단 :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빅타 엘 브라운 관리감독, 본 제이 피더스톤 감독(하단).
 뒷면은 대회 모임이 끝난 후 태버네클 주위인 운집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101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 1973년 1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83호

편집겸 발행인 : 엘 에드워드 부라운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행

1973년 1월호

제9권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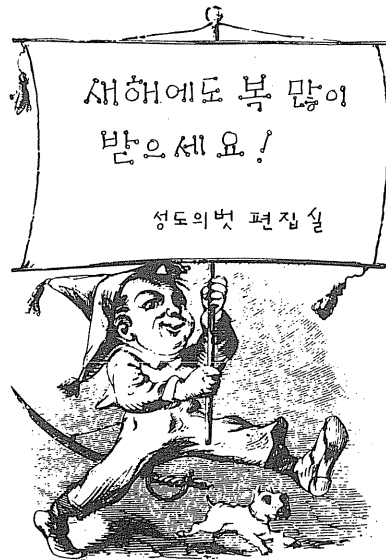
- 대관장단
해롤드 비이 리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름니
- 십이사도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타플리
리그랜드 리 차즈
휴 비이 부라운
하우워드 더블류 헌터
골든 비이 핑크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앨빈 제이 애쉬톤
부르스 아아르 맥콩키

정 가 : 1권 100 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800 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편집자란 : 해마다 년초가 되면 모든 사람이 과거의 악습을 버리고 새롭고 바람직한 습관을 지니겠다고 다짐합니다. 확실히 이러한 결의에는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해의 결심이 곧 헛사리 어긋나게 된다는 것은 과거의 예로 보아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심이 곧 어긋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러한 결심을 한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하루를 살려는 생각을 버리고 일년을 살려고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투쟁과 끊임없는 노력의 일년을 내다보면 용기를 잃을 수도 있으나 하루에 한가지씩 좋은 습관을 길들이고 악습을 버린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을 향상하는 일아 이처럼 쉬운데 놀랄것입니다.

결의를 깨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일상생활에 빠져서 좋은 의도를 잊게되고 그것에 우리의 정성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 한가지 방법은 매일의 기도를 하기 전에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는 목표와 결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하루를 반성해 보고 하나님 이 주신 도움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의 원리를 기억하고 새로운 결의를 하기 위해서 새해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기 향상을 위한 시간은 언제라도 좋습니다. 다음 한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해 지도록 발전하는데 도와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달의 성도의 벗 : 이달에는 12월호에 실린 피터스톤 감독의 말씀을 빼고 표지에 실린 총관리 역원들의 대화 연설문을 실었다. 또한 프로보 신전 헌납문도 실렸다. 전 세계 성도들을 위한 스미스 대관장님의 기도는 특별한 관심을 끌 것이다.

프로보 신전 헌납 기도문

1972년 2월 9일

지난 1월 18일부터 20일간에 걸쳐 거행된 오그덴 신전 헌납식이 있는지 한달이 되기도 전에 프로보 신전의 헌납식이 해의 왕국실에서 지난 2월 9일에 거행되었다.

프로보 신전의 헌납식에는 7만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헌납식은 신전내의 해의 왕국실에서 거행되었으며 폐쇄 회로의 칼라 텔레비전을 통해 신전내의 여러 곳과 브리감 영 대학 구내에 방영되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헌납문을 대관장단 제일 보좌인 해럴드 비이 리 부대관장이 대독하였다.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말일성도 찬송가 194장)과 호산나 찬양 소리를 외치며 헌납식은 막을 내렸다.

헌납식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삼라만상을 지으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지여,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따를 수 있는 권능과 자유를 주시는 거룩하신 분이시여, 전지 전능하시고 만사를 다스리는 아버지이지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

1. “하나님과 어린양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아멘 아멘 아멘!” 이러한 말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커틀랜드 신전과 기타 최근에 헌납된 여러 신전의 헌납식에서 행해진 헌납식 찬양의 외침이다.

든 창조물을 정의와 평등과 자비로서 다스리시는 아버지이지여, 당신의 위대하고 성스러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의 거룩한 이름으로 당신 앞에 서며 당신께 찬양과 감사와 축복을 간구할 때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길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당신의 손으로

창조되었으며 당신의 우리에게 거하는 양이며 당신의 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지상에 당신의 충만하신 복음을 주신 때에 우리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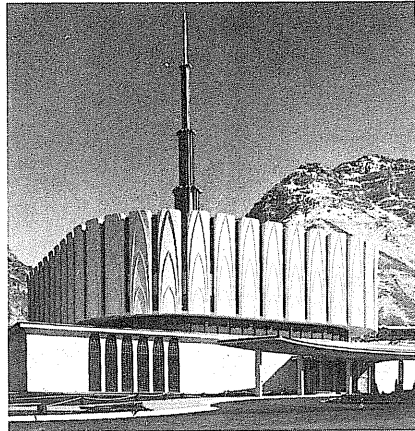
당신의 복음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며 당신은 독생자를 택하셔서 구세주가 되게 하셨고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실제로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감

사함으로 충만해 있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독생자의 구속의 희생 즉 십자가에서 돌아 가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대속케 하였고 우리를 육신과 영의 사망으로부터 구하여 주셨고 채찍질을 당하여 우리를 낮게 하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밝혀진 진리의 빛을 따라 생활하며 서로 즐거운 유대를 나눌 것을 성약하오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우리가 천년을 당신과 함께 살게 하셨으니 당신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를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결혼에 대해 무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우리는 독생자를 보내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느



칩니다. 우리는 이 경륜의 시대에 당신의 종 요셉 스미스를 통해 당신의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을 회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이 마지막 복음의 경륜의 문을 열기 위하여 1820년 봄에 당신의 아들과 함께 나타나시고 모로나이 천사를 보내셔서 물문경이 묻혀 있는 곳을 알려 주시고, 침례 요한, 바드로, 야고보, 요한이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게 하시어 모세와 엘리야와 일라이어스와 가브리엘, 라파엘, 기타 여러 천사를 보내 주셔서 모두 저희 권리, 열쇠, 존귀, 위엄, 영광 그리고 신권의 권능을 선언케 하였고 울레에 울레를 더하며 계율에 계율을 더하여 온전한 구원의 계획이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서 다시 지상에 충만하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늘날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내 준 진리에 감사드리며 이 말일에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펼 수 있도록 당신의 고귀하고 위대한 영을 보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축복사 하이람 스미스의 사명과 업적에 기쁨을 금할 길 없나이다. 이 두 사람은 마지막 경륜의 열쇠를 지녔으며 피로써 그들의 간증을 인봉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언자와 당신의 성실한 성도들이 보여준 신앙과 헌신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힘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통해 당신의 신권과 인봉의 권능을 나타내 주셔서 이 신전과 기타 여러 거룩한 전당에서 당신의 성실한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권능을 부여받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타 성스러운 모든 예언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영원한 성약을 맺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과 같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신 아들의 생활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자녀들과 먼 후손들을 위하여 의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전당을 향해 얼굴을 돌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신전에서만 찾을 수 있는 충만한 축복을 물려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자 하며 가족 단위의 영원성에서 찾을 수 있는 축복까지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시여, 당신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축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는 당신께



우리 후손을 위한 자유로운 기구를 보존하겠다는 마음과 결단력을 불어 넣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당신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축복해 주셔서 각부가 현명하고 용감하게 맡은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여 입헌 체제를 유지해 가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제 당신의 성실한 성도들이 지상의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세상적이며 영적인 복리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통치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정부 형태를 택하며 당신 앞에서 정당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되

서 우리가 시온산의 구원자로서 합당하게 살다 죽은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인류에게 나타내신 가장 위대한 사업인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신의 인도와 지도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성도들이 증가하고 의로움 가운데 당신께 봉사하여 또 다른 신전이 어느 곳에 건립될 것인가를 당신의 종을 통해 나타내 주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알며, 우리는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자들이 자유롭게 생명을 취하고 마음을 다해 당신께 사랑하고 봉사한 사람에게 주려고 쌓아 놓은 충만한 축복을 충분히 얻게 될 날이 오길 간구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비로써 우리를 보살피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온의 복리와 이익을 위해 당신께 간구합니다. 이 교회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당신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며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를 희미하고 어두운 데서 이끌어 내어 온 땅 위에 세울 권능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께서는 그것을 달처럼 밝게 빛나고 햇빛처럼 깨끗하고 보무당당한 군대처럼 위엄있게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가 이것이 당신의 사업이며, 그들이 당신 아들 앞에 나오고 그의 율법을 지키며 당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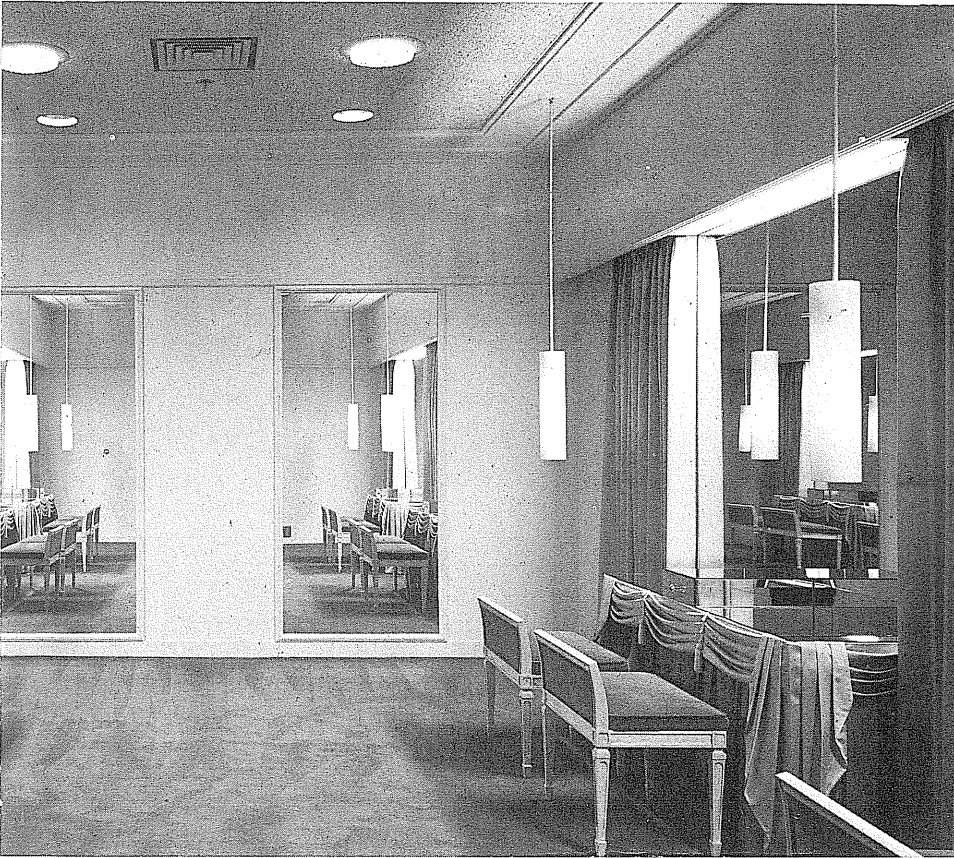
의 영원한 왕국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시온의 이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교회인 당신의 왕국이 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지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원수를 굴복하게 하옵소서. 존귀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며 당신의 사업을 파괴하려고 하는 혼란과 부정의 시기에 우리는 당신 아들이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게 되리라는 당신의 명에 힘과 위안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그가 우리들 가운데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며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어 이러한 축복을 영원히 찬미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대항하는 자는 누구나 번창하지 못하며 그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자는 누구나 당신의 합당한 때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약속을 엄숙한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실로 이 목적을 위하여 당신이 세운 현명한 자의 손을 빌어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게 하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문서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자유와 권리와 특전을 감사하며 그러한 것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간구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이 나라 최고 책임자의 마음 속에 우리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지여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학문의 위대한 전당인 브리감 영대학과 그에 부속된 모든 기구와 기타 교회 학교와 종교 학원, 세미너리 등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밝은 빛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이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를 행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자비가 임하게 하시고 이리하여 우리가 이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보다 온전히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문의 분야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영적인 지식으로 깨우침을 받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축복과 지식과 학문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가난하고 불행한 자에게 관심을 보이려고 하신 당신의 계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모든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나 스스로의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세상에 있는 당신 성도의 마음에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는 선언을 분명히 따를 수 있는 의욕과 결단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선출하는 데 의로움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현존하는 권력에 복종하며 그리하여 통치할 권리를 가지신 이가 다스려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시는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악과 도처에서 노리고 있는 부정으로 고

난을 당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온의 젊은이와 차리나는 세대와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로부터 악을 멀리 쫓아내시고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시온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왕국이 계속 번창하여 많은 젊은이와 자라나는 세대가 당신의 이름을 받드는 증거자로서 당신의 율법의 교사로써 힘과 영광으로 나설 수 있게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영감을 주셔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시고 가난하거나 불행한 자가 자존심을 손상하지 않고도 자립해 갈 수 있게 해 주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 세계로 팽창되는 스테이크와 선교부와 함께 우리는 당신의 종이 당신의 보호아래 영감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되게 하시고서 그들이 어디에 모이든지 당신의 백성으로서 보살핌과 축복을 받게 되도록 간곡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인도와 영을 간구하며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의 방법대로 보살핌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주신 원리 즉 고통을 당하는 자가 개인의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하고 지혜와 지도력과 세상적인 부가 풍족한 사람이 그들의 능력과 수단을 바치며, 고아나 미망인들에게 참된 형제애를 발휘하며,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원리를 따르 고자 하는데, 이러한 것은 당신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신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을 의미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지상에서 당신의 사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계시로써 당신의 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지여 우리가 드리는 찬미와 감사와 청원의 말씀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푸로보 신전의 인봉실



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손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며, 당신께 봉사하기를 원하며, 당신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며, 그 결과 당신의 왕국에서 당신과 함께 살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영의 속삭임으로 인도되고, 이제 당신께 또 다른 당신의 성전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주신 모범에 따라, 과거에 있던 당신의 종이 따르던 경로에 따라, 당신 아들의 반차에 따른 신권의 권능과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당신께 이 신전을 헌납합니다.

우리는 침례의 집이요, 엔다우먼트의 집이요, 결혼의 집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의의 집으로 이 신전을 바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이 건물을 받으시고, 당신께서 오시고 당신의 성령이 행해야 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영과 축복이 임하여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느낌을 모든 곳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가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신앙심을 굳건히 쌓고 평안의 느낌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는 마음을 갖고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신전이 서 있는 땅과 주위의 땅을 헌납합니다. 우리는 침례반, 의식실, 특히 인봉실을 헌납하오니 당신께서 거룩하게 하

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당신의 영이 참석하는 자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초부터 탑까지 모든 시설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파괴력이나 폭풍우나 재앙이나 재난에서도 지켜 주시옵기를 당신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신전 주위를 장식하게 될 길이나 경치, 나무, 꽃 등을 헌납합니다. 이들이 더욱 아름답고 우아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거룩한 신전을 훌륭하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모든 기계 시설을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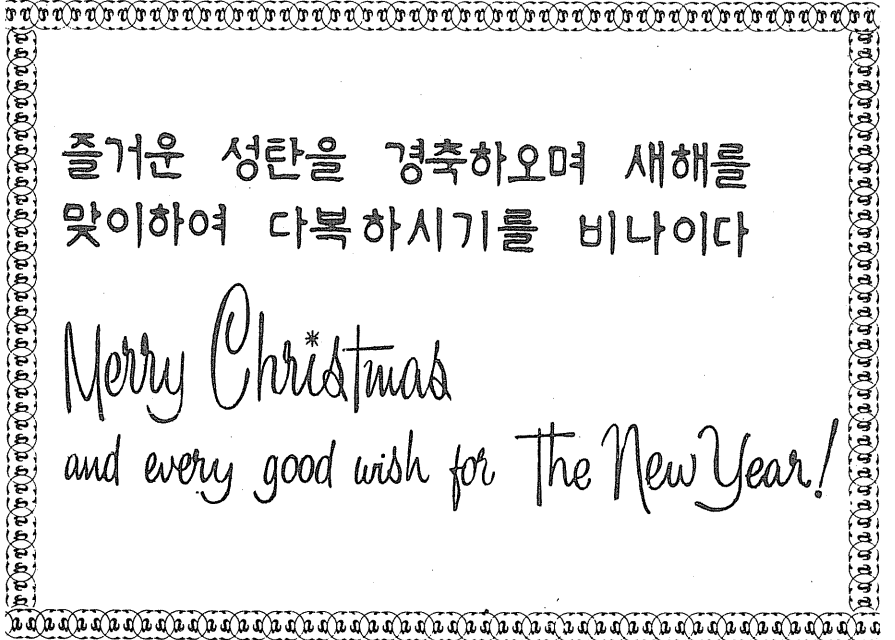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

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상에 당신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신전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도록 이 신전을 헌납하며 당신께서 이 헌납의 식과 당신께 드리는 이 거룩한 전당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즐거운 성탄을 경축하오며 새해를 맞이하여 다복하시기를 비나이다

Merry Christmas
and every good wish for The New Year!

새해에도 성도의 벼를 많이 얻어 주세요!

선교사와 그가 전하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보인

개인적인 인내심의 예

휴 비이 브라운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선교사나 선교 사업에 관해서는 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사에서 첫번째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제 나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68년전의 일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집을 수차 방문하였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라는 경고도 받았으나 그래도 자꾸 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자꾸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나는 집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노크를 하였습니다. 나는 방 앞에서 뜨게질을 하는 여인을 볼 수가 있었으며 그래서 그녀가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큰 소리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돌아서 뒷문쪽으로 갔습니다. 뒷문에는 두들길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집안 사람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곧 그녀가 나왔는데, 나는 그녀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동우리에 앉은 암탉을 강제

로 괴롭히며 쫓아내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동우리에 앉은 닭을 쫓으면 날개를 펴고 꺾꺾거리며 아무 곳으로나 막 날아가는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을텐데, 나는 이 여자를 보고 바로 그러한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나는 사과를 드리고 “방해를 하면서까지 만나 뵈자구 그래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자매님, 저는 하나님께서 자매님이 알기를 심히 원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육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이곳을 찾아 왔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매님께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주님께서 자매님께서 알기 바라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당신을 보내셨단 말입니까?” 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래서 저를 자매님께 보내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복음의 회복, 교회의 조직, 회복된 소식 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말한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집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폐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저에게 주어진 임무와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자매님께서서는 ‘우리 집 뒷문으로 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떠나게 되어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다



가 결국은 선교부를 찾아가서 소책자를 얻어 연구하고 가족과 함께 교회의 회원이 되었답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십년 후에 나는 군인으로서 다시 영국을 가게 되었는데 어느 모임이 끝났을 때 한 부인이 성장한 두 딸을 데리고 내게 다가 왔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메시지를 가지고 저를 찾아 주신 형제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와 딸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얼마 후엔 유타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님께서 거룩한 메시지를 가지고 저를 찾아 오서

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저에게 남겨 주신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서 사업의 거룩함을 증거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나는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그들을 지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 세계가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지상에서 이루고자 한 위대한 사업을 수행

할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이러한 간증을 드리며 축복을 간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과 저의 말씀을 듣는 분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이 사업의 정신을 이해하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증과 메시지와 기도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

방



1973년 1월호

에드윈 그린로우 샵

한밤중이었다. 마치 수천의 요정이 소리를 높여 외치듯이 바람이 창문에 부딪쳐 심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가루와 같은 아름다운 눈이 마루에까지 날아 들어왔다. 한밤중이었으며 북극의 해가 지평선 아래로 매달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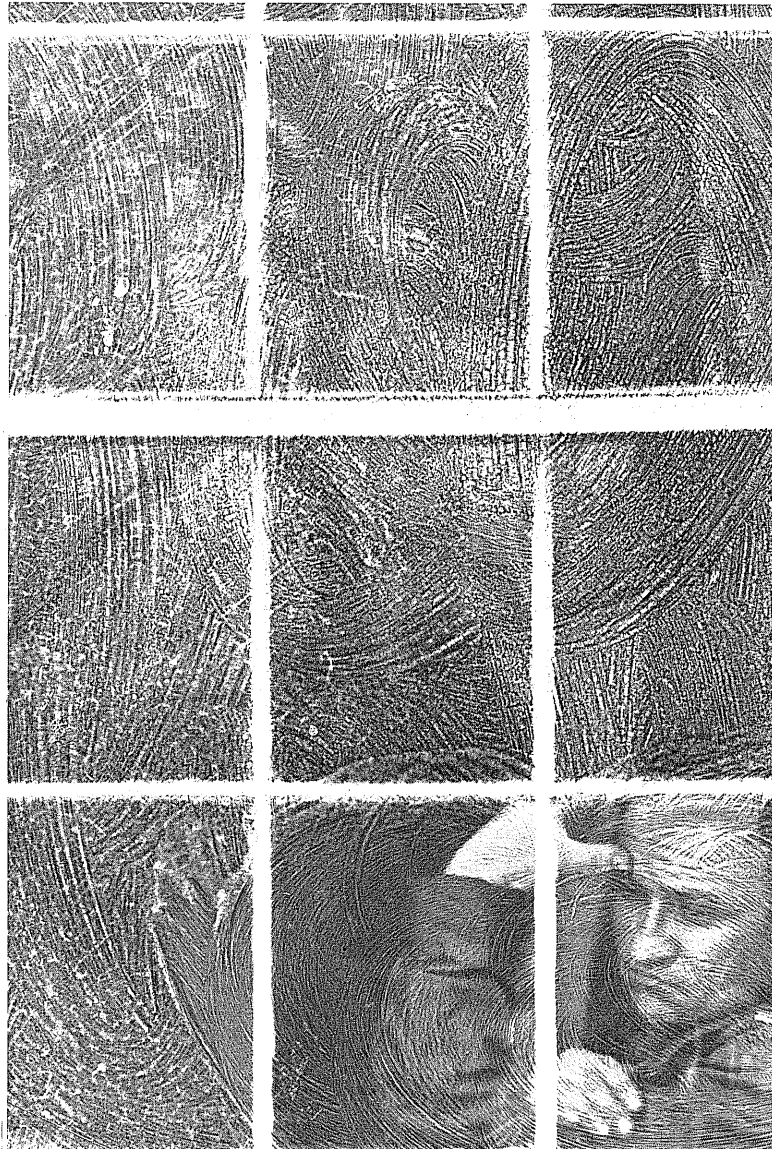
바람에 휘날리는 눈과 끝없는 태양이 방안의 전기 불과 뒤섞였다. 벽에는 먼곳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 달려 있었으며 그림들 사이에는 근무 당번의 명단도 붙어 있었다. 알라스카 해안에서 구해온 손으로 부어 만든 유리 어망 부표를 통해 일본의 흐릿한 모습이 가끔 보일 때가 있다. 수십 번 되풀이 해서 읽은 고향에서 온 편지가 낡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알라스카 미 공군 기지에 있는 이 방에는 적막이 무섭게 내려 깔려 바람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대위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흠이 나 있는 책상가에 다발을 올려 놓았다. 지금부터 일주일만 있으면 그는 5천 마일이나 떨어진 아내의 곁으로 날아가게 되고 일년간 고통과 성장을 또 다음 사람에게 인계하게 된다. 고통과 성장! 그가 이 쓸쓸한 섬에 도착한 직후 기지촌의 군인들과 인근에 사는 에스키모 가족들을 위해 종교적인 상담과 권고를 주고 목사의 대리로서 안식일에 예배를 집행하라는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책임을 부여받았다. 네 곳의 기지촌을 방문해야 하고 앙카리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월례 보고를 받아야 하는 목사는 한 달에 한 주일 외에는 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거리가 기다리지 않고 있을 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돌볼 책임을 지고 있는 대위는 이들을 위해 충고와 권고를 주었던 것이다.

자기의 아내가 외간 남자와 놀아난 상사가 있었고, 가족이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사병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 아들이 죽었느냐?”고 호소해 오는 젊은 아버지도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호소와 사정을 듣고 있노라면 대위의 마음에는 서글픔이

*샵 박사는 아내인 에라진이 텍사스주 산 안젤로에서 복음을 받아 들였을 때 미국 공군으로서 알라스카에 주둔해 있었다. 한달간 편지를 하고 전화를 한 후 그는 여기서 설명한 개종에 대해서 생각했고 1965년 8월 고향에 오자 곧 침례를 받았다. 현재 그는 체사피크 스테이크, 보위워드 서기로 일하고 있다.



먹구름처럼 일기 시작한다. 그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충고를 주며 사령부에 요청하여 이들을 고향으로 보낸다. 그의 도움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이나 그는 그것이 얼마나 부적당했는지를 알고 있다. 그의 권고에는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인내로써 참아올 수 있었다. 고통을 주시하고 참아왔던 것이다. 그도 역시 가정과 인생에 대한 관점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한때 희비로엿 같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추억으로 가득찬 자신의 마음이 자기가 쓰던 방과도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과거와 같은 상태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선교사들이라면 이러한 것을 느꼈을 것이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개종한 그의 아내는 편지나 전화로 그의 승락을 수차 물어 왔기 때문에 그는 사랑과 번민 속에서 결국은 허락했으며, 그래서 그의 아내는 물몬이라고 불리우는 이색 종교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다. 그녀와 떨어져서 혼자 있기 때문에 그는 아내가 회원이 된 후부터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아내는 진리에 대한 이상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경전을 통해 그것을 증거하려는 마음을 굳게 가졌으므로 그는 이제 그들 사이에 존재해 왔던 공동의 이해가 금이 가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었다.

슬픔. 이것이 이제 그의 인생의 경로가 될까? 그는 지금까지 부하들과 싸웠으나 결국 승리자가 되지 못하였다. 걸으로는 리본이 달리지 않은 마음 속의 승리자, 목적있는 승리자가 되지 못했다. 그는 앓은 의자를 뒤로 밀고 침상 옆에 있는 테이블을 응시했다. 그가 목사에게 부탁해서 앙카리지에서 구해온 종교에 관한 참고 서적 이외에도 낡은 성경과 다른 책과 대조가 될만큼 새롭게 재본된 물몬경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아내가 6개월 전에 보내 주었지만 물몬경은 아직도 깨끗하게 보존되었다. 그는 책들을 바라 보았다. 대학 철학 과정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신앙이란 동적인 믿음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본다. “나는 하나님을 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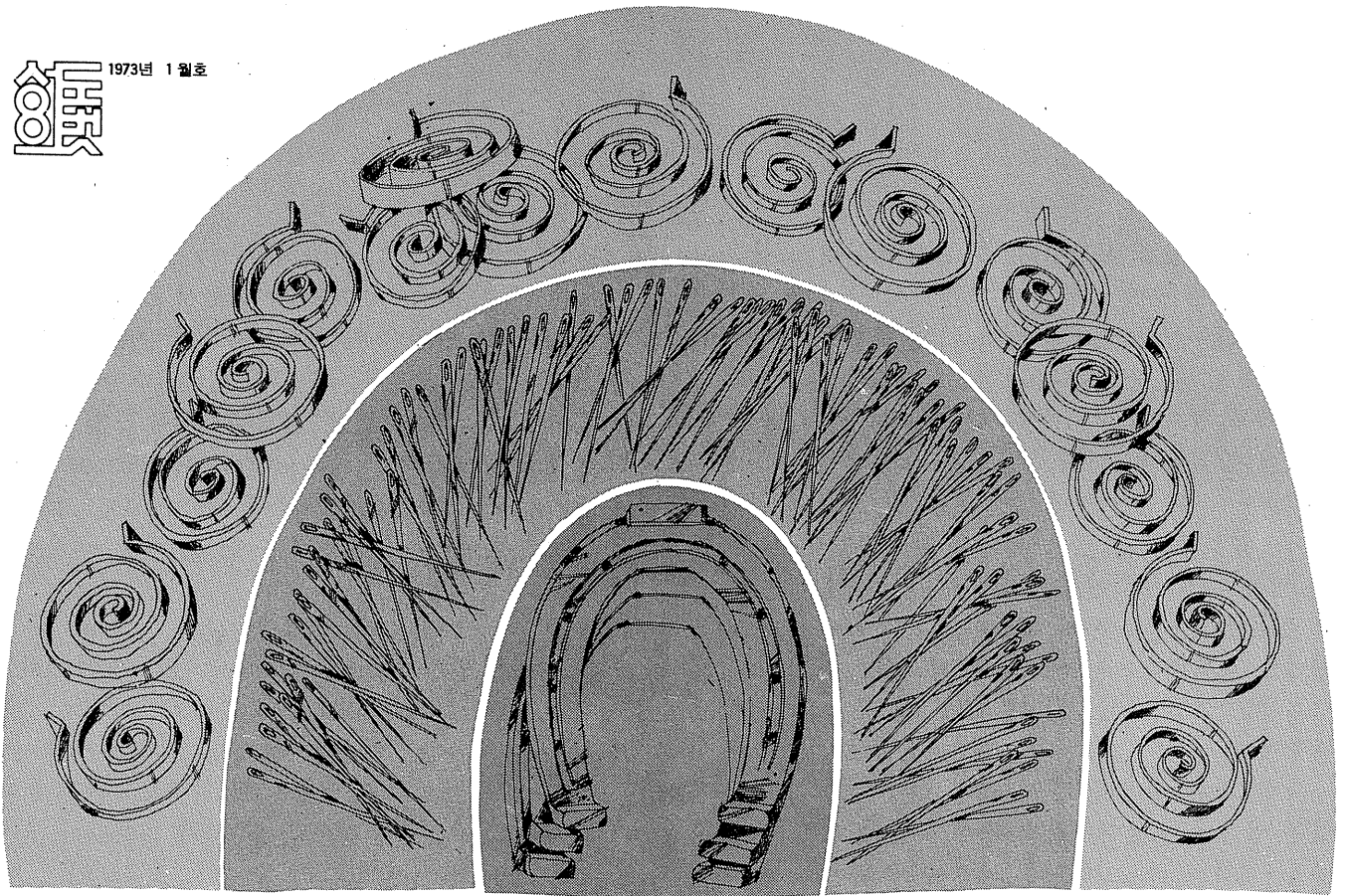
는다. 그러나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아내는 물몬이라고 불리우는 종교를 받아 들이고 우리의 생활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까? 우리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르며, 우리의 친구들은 조롱을 할지도 모르고 나는 조소를 받겠지. 나는 그렇다면 어디서 도움을 구할까? 내가 이끌어 가야 할까봐!”

절망에 싸여 그는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그의 생활에 그토록 큰 혼란을 가져다 준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나이서 10:4)

이것이야 말로 놀라운 약속인 것이다. 또한 무서운 약속이기도 하다. 그는 응답이 두려워서 과거에는 이러한 시험을 기피해 왔다. 이제 그는 시험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만일 응답해 주신다면 무어라고 말씀하실까? 만일 그 응답이 “아니다. 그 교회는 참되지 못하다.”라는 것이라면 그의 아내나 자녀들은 그가 끔찍 못하고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라는 응답을 받게 된다면 그가 지금까지 배우고 받아들인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 고뇌와 약속이 앞을 가린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밝은 한밤중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방은 한때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사방의 벽은 서로를 마주보며 위로를 해야 하나 그는 계속 발전해 나가게 된다. 그는 그날 밤 완전을 향한 길을 찾았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았고 성장의 아름다움과 발전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제 그는 아내와 함께 인생의 실을 집어 들었고, 강하고 튼튼하게 짜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천을 만들 수 있었다.



자신을 속인다는것

현

브리감 영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칼 지이 외저 형제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몇년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는 악인이요 자신을 속이는 자는 바보이다.” 나는 그것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힐튼 호텔의 경영주인 콘래드 엔 힐튼 씨 역시 그런 뜻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결코 속여서는 안될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이는 바로 자신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힐튼씨는 쓸모 없는 쇠막대 5달러의 가치가 있다면 그 쇠로 녹여 만든 편자는 10달러 50센트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 쇠로 바늘을 만든다면 3,285달러의 가치가 있게 되며 시계의 태엽을 만든다면 250,000달러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분명히 쇠의 가치는 그것이 광산에서 캐내져서 재련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의 보다 큰 가치는 그것으로 무

엇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 역시 이 쇠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원료와 같은 상태로 남아 있거나 혹은 상당한 정도로 잘 훈련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란서의 화가 밀레는 한폭의 화포를 사는데 25센트를 지불했습니다. 그는 붓과 물감을 사는 데 50센트를 더 지불했습니다. 75센트짜리의 화포에 그는 화가로서 모든 실험을 다 기울여 불후의 명작인 저녁종을 그렸고 이 그림은 결국 105,000달러에 팔렸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75센트짜리의 원료가 영감, 능력, 열정과 결합되어 104,999.25달러로 팔렸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정력과 시간과 노력을 방탕하게 낭비한 다음 말년에 가서야 자신을 되찾은 사람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후회합니

1. 밀레, 장 후랑소아 1814~1875

스펜서 더블류 킴블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왜 나는 오래 전에 봉사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까? 이미 수년이 지나갔구나. 내가 자신을 속였구나.”

여러분께서는 봉사를 위해 큰 대가를 치루나 주어진 권고를 무시하고, 처방된 약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나 결국은 그것을 시궁창 속에 부어 넣는 예를 두려움 없이 행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의 길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경우는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감독에게 화를 내기도 하며 질투심에 빠져 자신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의 고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의 일에만 전념한다면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기만하게 됩니다. 잠언 10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

이 첫번째의 목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은 부활을 하게 되며 영원히 우리를 봉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 아래서 아담과 이브는 우리의 첫번 조상으로 지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도록 최초의 영을 받아 들이기 위해 육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는 성스러운 창조의 힘이 부여되었습니다. 즉 다른 불을 켤 수 있는 힘을 지닌 빛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성스러운 결혼을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영이 거할 수 있는 육신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곳에 새로운 영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의 생활을 창조해 주고 지속시켜 주며, 우리가 행복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러한 가족의 생활에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것은 성스럽고 의미있는 힘이며 나는 젊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러한 힘이 훌륭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이브의 모든 아들과 딸처럼 십대인 여러분들도 자신 가운데 그러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조의 힘 혹은 흔히 말하는 생식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의 우연한 일부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계획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전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계획은 망쳐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얻게 될 행복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토록 거룩한 창조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청소년 여러분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의미를 안겨다 주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힘이 여러분 마음 속에서 크게 자라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반역자를 찾게 하고 그를 찾아내어 사랑하고 간직하게 해 줍니다.

나는 삶을 창조해 주는 이 힘이야말로 거룩하고 성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젠가는 자신의 가족을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잘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의 영역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커다란 책임이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창조력은 내재적인 강한 욕망을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태도와 취향의 변화를 통하여 이미 그러한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대에 들어서게 되면 갑자기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신 가운데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습의 변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육신의 육구의 속삭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힘은 적어도 두 가지의 차원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다소간 끊임없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힘은 강해야 합니다. 이는 대개의 사람이 천성적으로 모험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느낌의 강력한 실적이 없다면 인간은 가정이나 가족을 이끌어 가는 책임을 받아 들이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또한 끊임없이야 하는데 이는 이 힘이 가족 생활을 한테 묶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동물의 세계를 살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창조의 힘이 빨리 사라지는 곳이나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곳에서는 가족의 생활이란 찾아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삶은 이러한 힘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시련과 두려움과 실망으로 가득찬 세상은 희망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찬 왕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마다 세상은 그 순진함으로 새로워집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는 여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러한 힘이 선하고 훌륭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지니셨던 많은 것들을 모두 배워서 지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보다 더 훌륭한 학교나 시험의 장소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결혼이 매우 성스러우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창조의 힘을 여러분께 맡기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하게 계획되고 엄숙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의식을 행할 목적으로 신전을 지으라고 하신 뜻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께 경고로 드릴 말씀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모반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분의 계획을 전복하고 방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육신을 얻지 못하였고 쫓김을 받았는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영원히 하지 못하게 제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탄과 같이 질투가 강합니다. 그는 이러한 창조의 힘이 하나님 계획의 우연한 일부가 아니라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만일 그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힘이 다 자라기도 전에 사용하게 하거나, 너무 빨리 사용하거나 오용을 하게 끄인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진보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온 실체의 존재입니다. 그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창조의 힘을 보호하도록 제정된 율법을 여러분이 어기도록 자기의 막강한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는 너무나 교활하기 때문에 부도덕한 것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권유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노소를 불문하고 이 거룩한 창조의 힘을 알보게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성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저속하고 평범한 수준으로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수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것은 만족되어야 할 기호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러한 힘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는 쾌락이 그러한 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의 사악한 유혹은 유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농담으로도 전해지고 유행가의 가사로도 씌여집니다. 텔레비전이나 극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잡지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이 여러분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힘을 오용하게 하고 외곡되게 하려는 공공연하고 사악한 간계를 담은 소위 말하는 의실 잡지가 우리 주위에 혼잡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스러운 힘을 항상 침해받기 쉬운 사회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께서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몸에 손을 대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께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을 여러분에게 씌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끝까지 순수함을 지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주는 이러한 힘을 시험해 보자고 여러분께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한 방종이 오늘날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큰 잘못입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자유를 누리자고 기꺼이 합의했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그러한 것을 애정의 정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힘은 결혼 성약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힘을 절대로 오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순결의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재앙과 슬픔을 내려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밝혀드립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엡 41 : 10)

이러한 율법은 이러한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자녀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도덕율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도록 하실 아무런 이유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율법이란 저절로 확립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합당하게만 사신다면 면류관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러한 면류관을 잃는다는 것은 형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주 흔히 우리의 죄로 인해 벌을 받습니다.

나는 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미 범법을 행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뜻이 순진하기 이를 데 없으나 유희와 꾀임에 빠져 이미 이러한 창조적 힘을 오용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을 깨끗이 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침례서약이 그러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는 힘이 됩니다.

교회의 회원에게도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힘없이 깨끗하게 설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독이나 지부장을 찾아가

십시오. 그는 깨끗하게 씻어주는 흰 죽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언젠가 이러한 힘의 완전하고도 올바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며 의로운 가정 생활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여러분께서는 결혼 성약을 통해 올 수 있는 사랑의 성스러운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팔안에, 아들이나 딸들을 안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두 부부는 하나님 아버지와 공동으로 생명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여러분에게 속하게 되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했던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아는 한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 기르거나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를 기르거나 가족이 성약으로 굳게 뭉쳐졌을 때에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결혼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한 창조적 힘만은 훌륭히 지키십시오. 여기에는 여러분에게 훌륭히 적용될 수 있는 위대한 보상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은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경전에서 사용될 때 그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그가 우리를 위해 지닌 사랑에 대해서도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존경과 영예와 찬사의 명칭 가운데에서도 다만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보호하고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눈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대나 꿈 속에 있는 영원한 가정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스러운 은사인 창조의 힘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로 행복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이 은사를 성스럽고 순수하게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이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발견할 행복과 기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스러운 성약을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성약을 성취하는 가정의 모습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녀의 모습과 여러분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들 수 있다 해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의 율법을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끝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켜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스러운 은사를 훌륭히 사용하여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간증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질의응답

1

“화장에 대해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죽은 육신은 불로써 화장을 하거나(힌두교나 불교의 의식처럼) 성스러운 “침묵의 탑”에 남겨져서 독수리의 밤이 되게 하거나(조로아스타교를 믿는 페르시아인의 의식)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땅에다 매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의 전통에 젖은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말일성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은 자를 매장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경전에서도 그것은 불변의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망, 매장, 부활—그리스도의 구속—침수로서의 침례에 관한 복음의 가르침을 거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육신은 영원한 영의 필수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영이 거할 거룩한 장소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로서 그들의 묘지는 지혜롭게 선택되고 잘 보살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죽은 자의 묘자리를 택하는 데 어떤 땅이 특별히 풍수설에 좋다고 하는 공자의 지리설이 근거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나는 또한 죽은 자가 그들이 죽은 후에 얼마나 잘 보살핌을 받았는가에 따라 살아 있는 후손에게 벌을 주거나 보상을 준다는 생각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무덤이란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성지는 아닙니다. 육신은 썩어 없어지나 죽은 자의 생명과 인격체가 무덤 주위를 맴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영은 영의 세계인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장례식에서 행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연설에서 만족과 의의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매장되는 땅은 나에게서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불문경이나 기타 경전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 땅의 원주민들까지도 그들 조상의 묘지를 다른 어느 것보다도 성스럽게 여겨 왔습니다.…”

“나는 자신의 친구를 이곳에다 묻은 사람들은 그들의 상태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감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던 야곱과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친구가 그들을 조상의 묘소에 묻어 주기를 얼마나 원하였습니까?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료를 뿌리는데 소모된 경비나 장례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호화로운 장례식을 갖지 못하는 것을 큰 일이나 난 것처럼 항상 생각해 왔으며, 고대의 예언자들도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큰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성도들 가운데서 죽고 싶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죽겠으니 하나님이지여 내 친구로 하여금 내 몸을 찾아 오게 하시고 이역에서 세상을 떠난 나의 친구들을 한 곳에 모아 우리가 모두 나란히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평소에 원하던 바를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일 죽게 된다면 부활의 아침에 바위가 잘라지며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부친을 향해 ‘아버지’라고 소리치면 그도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시며 대답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사는 방법과 죽는 방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가 자리에 누울 때 우리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이 흥미로운 내용에 관해서 내가 시현으로 본 것을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그 시현은 아주 평범한 것이었는데 나는 무덤으로부터 승천하기 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았는데 그들은 마치 천천히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도 흡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마주 보면서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어머니, 내 딸, 내 형제, 내 자매”라고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은 모두 일어나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아버지 곁에 누워 있다고 가정한다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내 곁에 있다면 나는 그들을 겨안을 것이고 그들 역시 나를 겨안을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데저렛 출판사, 1961], 294~96페이지)¹

이것이야말로 죽음과 부활의 완전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죽음과 장례의 절차는 항상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항상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참사로 세상을 떠납니다. 조종사들이 격추되기도 하며 그들의 육신은 수용소에서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시체는 종종 찢기거나 절단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형체조차 분간하기 어렵게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장되어 고기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의롭고 성실한 사람의 육신이라도 온전히 매장되지 않으며 전혀 땅에 매장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구라파의 일부 지역이나 남미에서는 지하수 평면이 높기 때문에 시체가 땅에 매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관에 담아 땅 위에 놓거나 때때로 포개 놓기도 합니다.

오늘날 어느 곳에서는 지방의 법으로 매장을 금하고 화장장을 장려하는 태도 있습니다. 아시아의 일부 국가 수도는 너무도 인구가 조밀하기 때문에 묘지가 값비싼 상품과도 같으며 급격히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있는 성실한 교회 회원들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매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시체에 향을 뿌리고 썩지 않게 해서 매장을 바라고,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따른 전통이지만 교회의 교리나 경전에서도 화장을 금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호 텔의 대화재로 희생된 자매의 경우처럼 불(화장)로써 육신이 분해된 사람들도 전과 같은 모습으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 육신의 근본적인 요소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다른 영혼에 속하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 정사 5권 339페이지 참조) 엘마

1. 로렌조의 반즈의 장례식에서 행한 예언자의 말씀.

가 다음에서 약속했듯이 이러한 육체도 온전하게 부활됩니다.

“이 부활은 모든 사람 곧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속박에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 남자나 여자, 악하거나 의로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요, 머릿털 하나라도 잃지 않고 혹 지금 우리가 가진대로가 아니라고 하면 인간의 형태 그대로 완전한 모양을 갖추어 회복되리니.....” (엘마서 11:44)

우리는 모두 세상에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원하는 말일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브리검 영 대학에 유학을 온 우수한 학생이며 귀환 선교사인 일본 성도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흔히 시체를 화장하는데, 나는 이것이 시체를 땅에 묻는 것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을 하고 나면 먼지와 잔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시체를 땅에 묻어 벌레나 박테리아가 썩게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나에게서 매우 불결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내가 자라난 습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이 사라진 다음 육신이란 생명이 없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여러분이 화장을 했거나 매장을 했거나간에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교회의 교리로도 화장이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나는 죽은 자에 대한 감상적인 느낌보다는 산 자를 위한 청결이 더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장이 바람직하고 주님의 뜻과 생각에 합치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느낍니다.

코코아파스족 인디안 회원인 마크 존슨 베스트의 죽음에 관해서 20년전 나의 선교부장이 들려준 경험담은 바로 그런 점을 분명히 해 주고 있습니다.

베스트 형제는 세상을 떠날 때 활동적인 말일성도들로 구성된 지부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조나주에서 있었던 베스트 형제의 장례식에 가는 길에 선교부장은 왜 베스트 형제가 죽어야 했는지를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는 마크 존슨 베스트가 인디안들 앞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는 그 수가 근 천명에 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크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가운데에 앉아 있던 인디안 한 명이 벌떡 일어서더니 “이 사람 말을 듣지 말라. 그는 레이맨인이 아니다. 그는 니파이인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크 존슨 베스트는 다시 “나는 니파이인이 아닙니다. 나는 레이맨인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나의 백성의 습관에 따라 나도 화장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는 마을에 선교부장이 도착했을 때 스테이크 부장은 그곳에서 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크의 부족인 코코아파스 인디안들은 그들 선조의 관습에 따라 그를 화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부족들은 매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코코아파스족들은 그가 매장된다면 다시 파내서 화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교부장은 장례식 연설을 통해서 그가 지난 밤에 본 시현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들 만족해 했고 이 문제로 더 이상 다툼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선교부장과 그의 아내는 마크 존슨 베스트가 화장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스펜서 제이 팔머
아시아 연구소 소장
브리감 영 대학
전 한국 선교부장.



“우리는 결혼을 하려고 하며 약혼자와 나는 신전에 가려고 합니다. 신전 의식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는지 미리 알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엔다우먼트나 인봉을 받으려 신전에 가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엔다우먼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대한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곁에 가며, 구원을 얻으며, 승영과 영생을 얻는가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사이나 그것은 성스러운 전당에서 주님과 맺은 성약을 성실히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존 에이 윌소장로가 쓴 기사를 아치발드 에프 베넷트 장로가 편집한 “시온산의 구원자”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이란 개인으로 볼 때 어떤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엄격한 순결의 법 준수나 자비, 사랑, 인내, 순결을 다짐한 성약, 진리의 전파를 위해 재능과 재물

을 바치며, 인류의 부리를 증진시키며, 진리의 대업을 위해 헌신하며, 세상의 왕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큰 준비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도울 것 등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약을 맺고 의무를 받아 들이고 주어진 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약속된 축복이 선언됩니다.”

신전 결혼이란 여러분이 신전에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며 남편과 아내로서 영원히 인봉되며, 이 세상에는 물론 다음에 올 세상에서까지도 크나 큰 축복이 약속된다는 점에서 일반 결혼과는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의 신전 결혼은 영원한 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새롭고 영원한 가족 단위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성약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이며 따라서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신전에 오기 전에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으로부터 합당함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바라는 바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합당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합당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성약을 지키면 충만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2 : 10)

여러분께서는 여러분께 요구되는 모든 성약은 잘만 지킨다면 여러분의 삶을 훌륭하게 이끌어 준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 훌륭한 교회 회원, 훌륭한 시민이 되며, 사업상의 거래에도 정직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의 하나인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 : 12)

여러분이 신전에서 맺도록 요구된 성약은 성스러운 것이며 신전 외에서는 결코 이야기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이 거룩한 전당에서 맺은 성약을 실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번창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며,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경하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를 축복하시며 번성하게 하시리라.” (모사이사서 2 : 22)

신전 의식에 관한 위대한 원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말로써 요약됩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 : 20, 21)

오우 레스리 스톤
 샬트 레이크 신전장



“해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 맥킨레이 형제

요셉 스미스가 때가 찬 말일의 경륜 시대의 문을 열도록 예언자로 성임되었을 때 종교적인 총 결산으로 당시를 지배하던 종교적 신비주의가 종교적인 감상주의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종교란 사물과 인간을 다스리는 영원한 율법으로 분명하게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가장 높은 영광인 해의 영광은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열렬히 기도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훌륭한 선행을 자주 해서 장점을 쌓아 놓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인 이러한 느낌과 행위는 달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해의 영광에는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간절한 요구와 선행이 해의 영광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지만, 태양이 그 힘과 찬탄함에 있어서 달을 능가하듯이, 한정된 달의 영광을 능가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의 영광의 사실성과 활력을 지배하는 율법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대신련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

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로써 의식을 집행할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니라.

“그 의식과 신권의 권위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4 : 19~21)

구세주로부터 직접 권능과 힘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복음의 의식을 받는다면 율법의 축복에 의해서 해의 영광의 삶을 체험하도록 이끌린 것입니다. 해의 영광의 결혼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모든 의식에서 자라난 독특하고 신성한 권능을 계속 개발시킨다면 해의 왕국에서 최고의 위치인 승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해의 영광에 속한 영들은 육체였을 때와 똑같은 몸을 받으리니, 너희는 너희 몸을 받을 것이요, 너희 영광은 너희 몸을 살리시는 그 영광이 되리라.

“해의 영광의 일부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는 자는 그와 똑같은 영광, 진실로 충만한 영광을 받으리라.

“달의 영광의 일부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는 자는 그와 똑같은 영광, 진실로 충만한 영광을 받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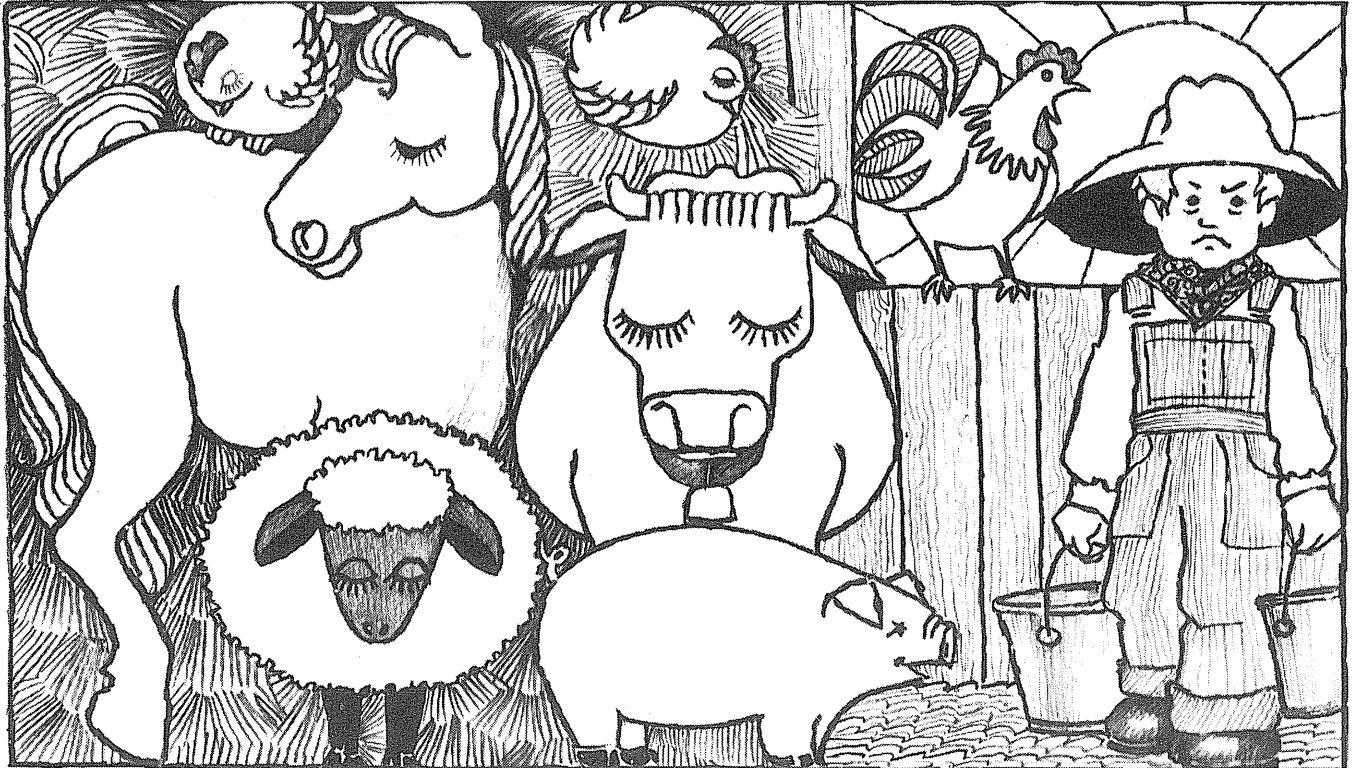
“별의 영광의 일부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는 자는 그와 같은 영광, 진실로 충만한 영광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88 : 28~31)

달과 별의 왕국의 모든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포함하는 해의 왕국의 율법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생활화한다면 해의 영광을 얻기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얻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특기해야 할 점은 이 영광의 모든 감미롭고 만족스러운 기쁨은 부활한 후의 삶으로 얻기되어서는 안되며, 우리가 이 지상을 사는 동안 자주 힘차게 경험으로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복음 교리반 교사
 통신학 교수
 브리검 영 대학교





농부와 수탉 셋

버지니아 마세이 지음 니나 그로버 그림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탉과 주인인 늙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틀 무렵이면 셋이 농부와 그의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는 또한 돼지, 소, 병아리, 틀에 있는 까마귀도 깨웠습니다.

“꼬끼요!”하며 셋은 아침 해가 세상을 밝히려 할 때 울어댔습니다.

셋이 울면 농부는 투덜거리면 잠에서 깹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주먹질을 하며 “야, 이놈아, 조용히 좀 못하겠니!”하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즐거운 표정으로 일어납니다. “돼지 먹이를 주고 암소에게는 물을 주어야지요. 당신이 부자가 되도록 깨워 준 닭에게 감사를 해야 한다고. 여보”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느날 아침 셋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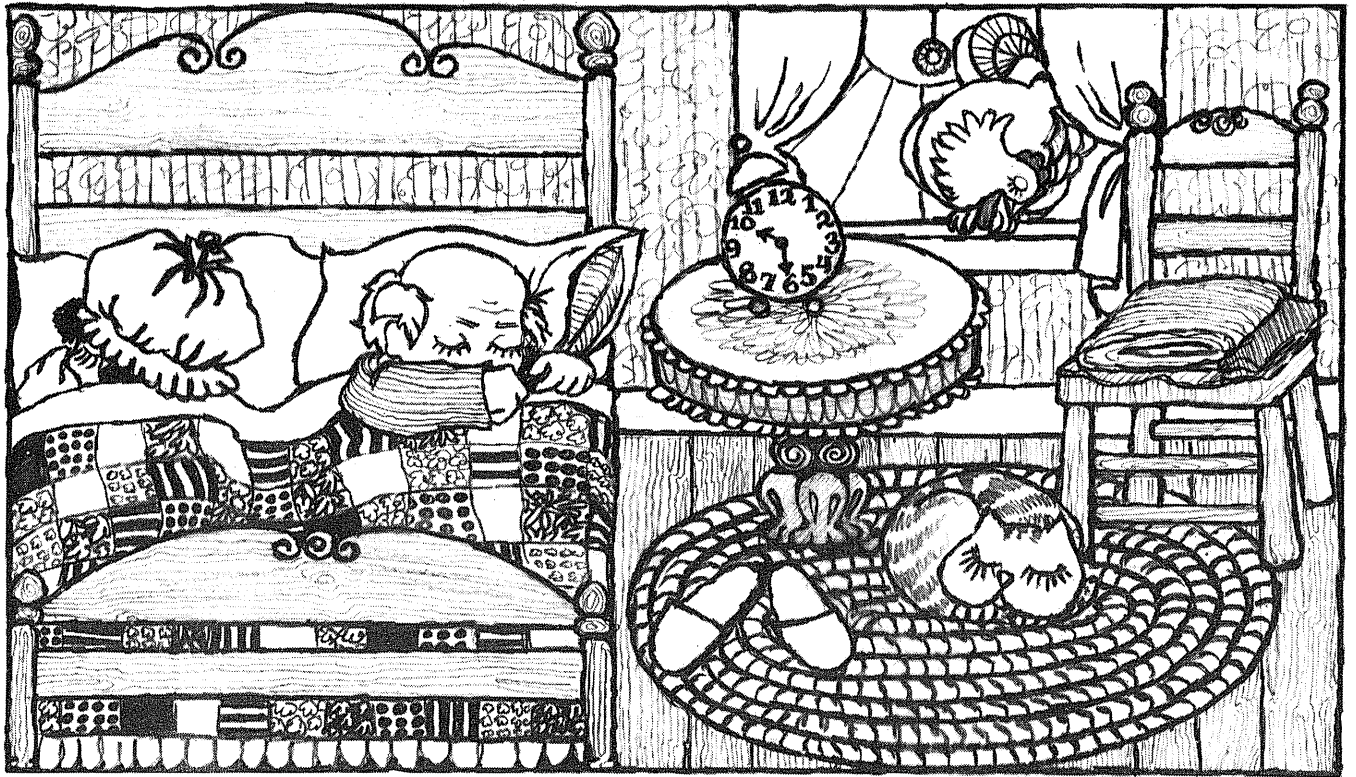
사할 줄 모르는 농부를 내가 깨울 필요가 없겠지! 그는 고마운 기색이란 전혀 보이지도 않으니... 나도 다른 놈들 처럼 실컷 잠이나 자야겠다.

농부는 그날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곧 돼지가 배가 고파서 꿀꿀거리기 시작했고 암소는 젖을 짜지 않는다고 울어댔으며, 병아리 역시 곡식을 찾아 시끄럽게 쪼다녔고 까마귀는 참다 못해 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농부는 그날 밤 늦게까지도 일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늙은 수탉이 내일은 분명히 울겠지!”하며 농부는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셋은 다음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부는 매우 당황해 했습니다. “넌 도대체 요즘 어찌된 영문이니?”하고 농부가 수탉을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셋은 다만 날개만을 폈다가 다시 오므릴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오”하고 농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농장이 망하겠어. 돼지는 살이 빠지고 닭들은 알을 낳지도 않고 암소의 젖은 신맛뿐이고 까마귀는 애써 가꾼 곡식을 훔쳐 먹으니!”

“좀 친절하게 대해 보세요”라고 아내는 조언을 했습니다.

“친절하라니”하며 농부는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시다면 자명종을 사시구려”하면서 아내가 대꾸를 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구려”하며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그는 마을로 달려가서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날밤 그는 태엽을 조심스레 감고는 머리맡에다 놓고 잤습니다.

“따르릉”하면서 시계가 울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담”하면서 그는 잠에서 깨자 소리쳤습니다. “난 셋의 꼬끼오 소리에만 귀가 익어서 다른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게 되었나봐. 이제 어떻

게 하지?”

“좀 친절하게 대해 보세요”하며 아내는 다시 한번 제의했습니다. “셋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하시구려.”

농부는 시키는대로 가서 말을 했습니다. “네 목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단다!”라고 그는 셋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한 움큼의 모이를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셋은 담장 위에 올라서서 날개를 휘저으며, 검고 긴 목을 잡아 빼며 “꼬끼오 꼬끼오”하고 울어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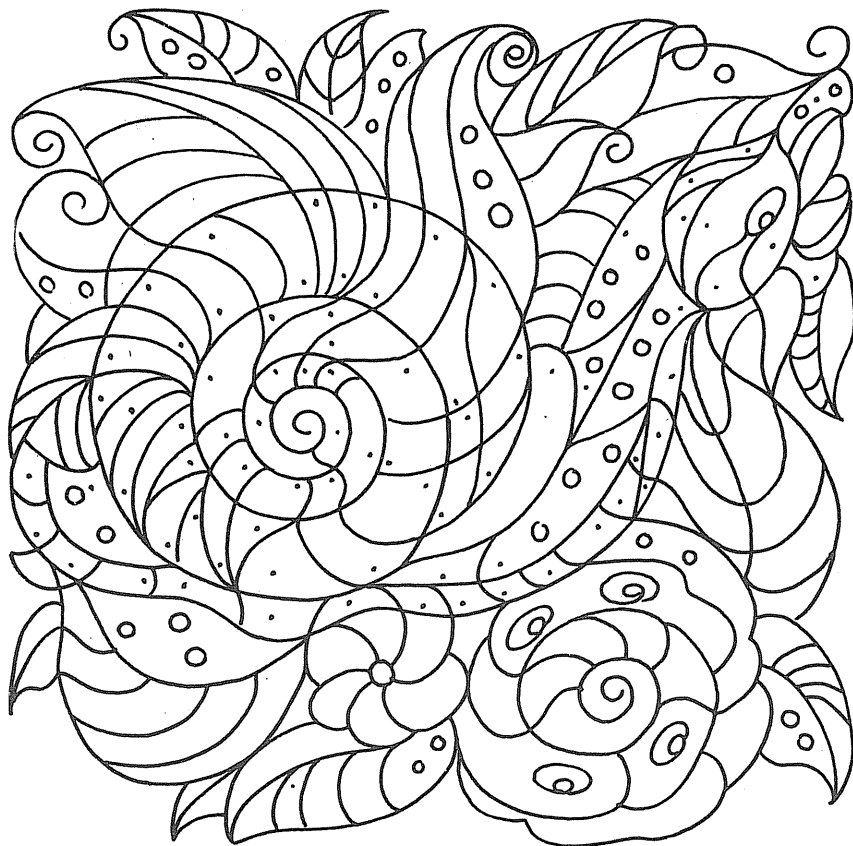
늙은 농부와 그의 아내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농부는 창가로 달려가 기쁜 마음으로 “셋아 잘 잤니? 네 울음 소리를 들으니 정말 반갑구나!”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일을 끝마쳤습니다.

그날밤 아내가 잠자리에 들 때 남편의 모습을 보며 싱긋이 웃었습니다. “한 움큼의 모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라고 그녀는 물었습니다.

“작은 친절이지”하며 행복한 농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로 들어 가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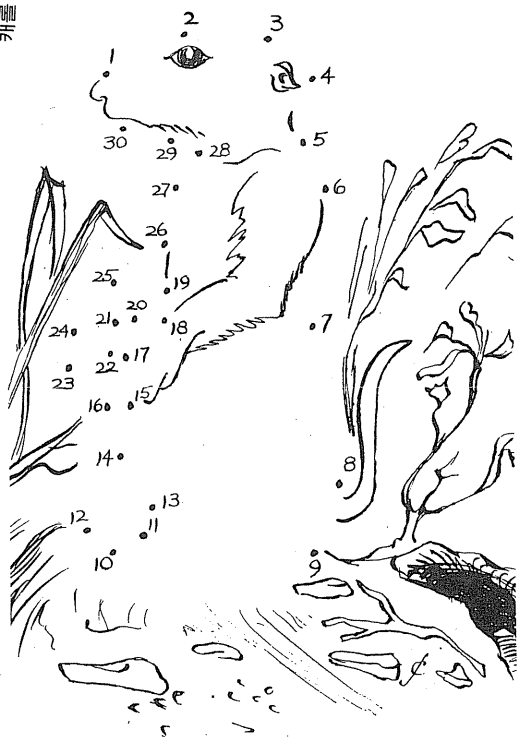
점이 하나 찍힌 칸을 색칠을 해서 그림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다.

수수께끼



수수께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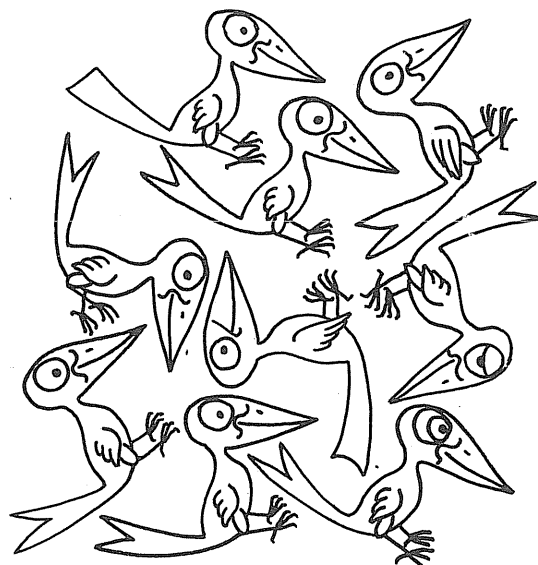
캐를 코너



닭은꼴 찾기

월드 트랙

똑 같은 모양의 새를 찾아 색칠한다.



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

나는 아버지께서 주님의 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죽음 내지는 중상에서 위험을 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내 생애는 그것으로 끝났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뀌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말을 타고 사과밭 사이를 달린 적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내가 탄 말은 잘 걸들어진 것이었으므로 나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말을 달렸습

니다.

그러던 어느날 말이 갑자기 놀라서 과수원 사이를 쏘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고삐를 잡고 안장에 꼭 달라 붙었으나 한쪽 발이 등지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결사적으로 고삐의 가죽을 움켜잡았습니다. 내 몸무게로 고삐 줄이 끊어지리라고 생각했으나 어쩔듯 끊어지지 않고 잠시 동안 견디어 냈습니다. 한 두번만 더 뛰면 고삐끈이 잘라지거나 꼬여서 나는 한쪽 발만을 등자에 걸치고 끌려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말이 멈추었고 나는 누가 말의 고삐를 꼭 잡고

성난 말을 달래려고 하는 모습을 눈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팔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내가 놀라서 날뛰는 말에서 떨어져 짓밟히는 것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보내 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집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갑자기 “과수원으로 가 보라”는 영의 속삭임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부르스 아아르 맥콩키
십이사도



순간적으로 그는 아무런 이유도 모르며 그곳으로 달려 오셨던 것입니다.

과수원에 와보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는 멀리서 달려 오는 말을 보고 저 말을 멈추게 해야겠다고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였고 내가 말에

탄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내지는 중상을 입을 위험에서 구조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은 월포드 우드럽에게 큰 나무에 묶어 놓은 마차를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마차를 옮기자마자 회오리 바람이 불어 탁치고

마차를 매어 놓은 나무 등치를 뽑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영은 죠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게 빨리 기차의 승강단을 떠나 안에 들어 가서 앉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안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기차는 사고를 당했으나 그는 무사했습니다.

나는 월남전에 참가한 한 공군 조종사가 짙은 안개로 길을 잃었을 때 오른 쪽으로 기수를 돌리라는 주님의 영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기수를 돌리자마자 다른 비행기가 순간적으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불과 몇인치 차이로 충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칩제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성실함에 따라 신회의 한 구성원인 성신이 항상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의 성실한 기도로 주어지는 거룩한 영인 성령의 인도와 돌보심보다 더욱 간절히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영을 구할 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상의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㉞

제리 톰슨 그림



물몬

마벨 존스 개뿔

“**물**몬아 내가 보기에 너는 착실하고 또한 재치있는 아이로구나”하며 앰마론은 말했습니다.

물몬은 앰마론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미대륙에 있는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을 보존하라고 하신지 320년이 흘렀습니다. 물몬은 이미 십대의 소년 시절에 이에 관한 이야기를 수차 들어 왔으며, 그들 백성의 모든 성스러운 기록을 맡고 있던 역사가인 앰마론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물몬은 앰마론이 하는 다음과 같은 말에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나이 이십 사 세쯤 되거든 이 백성들이 행하는 일을 잘 살펴 기억해 두었다가 엔툼 땅에 있는 시므라 하는 산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 이 백성들에 관한 성스러운 기록을 주께 맡기었으니, 네가 그곳에서 니파이의 판을 취하되 니파이의 판에 네가 이 백성들에 관하여 보아 온 일을 모두 기록하라.”

앰마론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한 물몬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의 가슴은 더욱 더 뛰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물몬을 완전히 믿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기록을 보고 싶었으며 실제로 다루어 보고 역사들을 읽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앰마론은 “네 나이 이십 사 세쯤 되거든……”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십사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보다도 더 긴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물몬이 열한 살이 된 다음 해에 그는

아버지를 따라 많은 건물이 있는 제이라헤물라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 사년간 이땅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제이라헤물라 백성들 사이에 악한 마음이 퍼지게 되었고 물몬이 열 다섯 살이 되던 해에 그들 가운데서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병고치는 은사, 기적, 축복 등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레이맨인 중에 섞여 살던 개다이엔톤도적단들이 날뛰며 마구 닥치는 대로 죽이고 값진 보화나 재물을 모조리 훔쳐 갔습니다. 그러나 물몬은 주님의 방문을 받았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이 강박해졌으므로 복음을 가르치지 말고 주시하고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몬이 열 여섯살이 되었을 때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니파이인들은 물몬이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 악을 멀리하며 선한 길을 추구하는 것을 알고 그들 군대의 지휘자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물몬을 믿었지만 막상 전쟁터에서 수많은 레이맨인들이 밀어 닥치자 겁에 질려 북쪽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온 땅을 휩쓴 유혈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몬은 그의 백성들에게 용감하게 대항해서 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들도 그의 말을 듣고 잘 싸웠습니다. 레이맨인들도 물몬 앞에서는 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한 물몬이었지만 그는 그의 백성들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이 니파이인들로부터 사라졌는데 이는 그들이



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북쪽으로 밀려와 앰마론이 시므산 근처 기록을 묻어둔 곳이라고 한 지점까지 퇴각하였습니다.

이제 물몬이 서른 네 살이 되었으나 앰마론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므산 언덕을 찾아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기록들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물몬은 기록을 찾았고 자기 손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모두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각판에는 정교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연구하고 읽었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니파이판만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물몬은 셈이라고 불리우는 땅에 백성들을 모았으며, 이들은 고향을 다시 찾을 때까지 레이맨인들이나 개다이엔톤 도적단을 맞아 잘 싸웠습니다. 이들 사이에 협정이 맺어졌고 십년간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몬에게 그의 백성들의 간악함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며 그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몬은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그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려 주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이맨인들과 싸우고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몬은 다시 기록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간악함과 가능성을 니파이의 판에는 낱알이 기록하였으되,…”라고 그는 적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과 예수의 선하심에 관해서도 기록하였습니다.

좋은 연장이 있다고 해도 금속 판에 글자를 새겨 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선대 역사가들의 기록도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기록을 보아서 비슷한 결

론을 찾아 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졌고 그를 잊으면 슬픔이 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몬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간증을 알게 될까 하고 고심했으며 그래서 그는 한 권의 작은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이 전쟁을 하는 28년 동안 물몬은 간단한 기록을 책으로 남겼는데 이는 주님께서 그가 본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또한 그 자신도 후세의 독자들에게 당시 백성들의 사악함을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몬은 앰마론이 시므산에 감춘 모든 기록을 백성들이 북쪽에서 피해 있는 동안 잘 보존하였습니다.

다시 물몬은 그의 백성들을 구모라 땅으로 인도하였고 이곳에서 천막을 쳤습니다. 이제 그는 일흔 다섯 살이 되었으며 이번에 그곳에서 있을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되리라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레이맨인은 수도 많고 전력도 강하였습니다. 니파이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그래도 싸웠습니다. 그들은 온갖 무기를 다 사용해서 싸웠습니다. 물몬이 군대를 직접 지휘했으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죽고 니파이인 중에서 스물 네 명만이 살아 남았습니다.

물몬은 이때를 “십령을 찢기는 듯한 비통함”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시체 앞에서 슬퍼하였으며, 백성들이 그들의 간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봉사를 하였다면 이런 끔찍한 전쟁이 없었을 것이라고 애통해 하였습니다.

물몬은 상처를 입었고 곧 자기도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들인 모로나이에게 명하여 물문서를 끝마치게 하고 다른 모든 성스러운 기록과 함께 감추어 두라고 했으며 모로나이는 부친의 말대로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㉔



정책과 절차 1973년 1월호

서명 수집과 인사 “교회의 회원들 중에서 스테이크나 선교부를 방문하는 총관리 직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누가 찬송가나 경전에 더 많은 서명을 받았는가가 경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가 끝나고 총관리 직원이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려 하는데 서명을 받으려고 밀어 닥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그 형제들에게 지나친 명사의 인상을 받게 하므로 그들에게 부여된 성스러운 부름을 이행하는 데에도 저해가 된다.

“총관리 직원은 언제나 교회의 회원들과 악수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서명을 받는 일보다는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임 성격에도 맞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합당한 방법이다.”

총관리 직원의 말씀 녹음 “우리는 여러분이 다음의 말씀에 주의를 환기해 주기 바란다. ‘스테이크 대회에서나 기타 어디에서든지 총관리 직원의 말씀은 본인의 승인없이 절대로 녹음할 수 없다.’

“우리는 총관리 직원이 참석하는 스테이크 대회나 기타의 모임에 녹음기를 가지고 오는 성도의 수가 증

가하는 것을 알아 교회 회원들에게 이와 같은 권고를 하며 주의를 환기시킨다.”

장례식 절차

“장례식을 집행하는데 다음 사항을 유의하기 바란다.

장례식을 집행하는데에는 개회나 폐회시에 음악을 넣지 않고 중간에만 한 곡을 넣는 습관이 오래부터 내려 왔다. 앞으로는 교회 역원의 감리로 진행되는 이 의식은 음악, 말씀, 기도 등이 성찬식의 일반 순서와 같아야 한다. 개회 기도 순서 전에 개회 찬송을 불러야 하며 폐회 기도를 하기 전에도 일반 집회의 관례에 따라 마지막으로 찬송을 불러야 한다. 음악 순서는 합창단이 따로 맡아서 해도 좋다.

“말씀 순서는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를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관이 집회 장소에 들어 올 때 감독이 행렬을 이끌고 걸어 갈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제언을 따르다면 이 의식이 이미 확립된 의식의 절차와 일치하게 되며 다른 곳에서 성행되고 있는 의식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평화는

언제 오게 되나?

1973년 1월호



세상의 모조된 평화와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

오늘 아침 내가 태버나클에 들어서려는데 어느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저녁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연사이시지요.”

나는 그가 이 훌륭한 대회를 통해서 많은 훌륭한 것들 즉 예언자, 선지자, 계시자들의 간증과 놀랄만한 변화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는 구세주라는 많은 형제들의 간증들을 마음의 잔이 넘칠 정도로 만족스럽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것이야 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나는 과거 10년 동안 훌륭한 두 분의 형제들과 함께 일할 특권을 누려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로버트 엘 심프슨 장로와 빅타 엘 브라운 감독의 업적을 지켜 보았고 그들의 훌륭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별을 뜻하거나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훌륭한 두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며 그들의 봉사에 대한 대가로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계시로 인도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자인 죠셉 필딩 스미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그의 보좌는 스미스 대관장님을 도와 하나님을 받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대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를 생각할 때에만 해도 내 직책에

* 죠셉 필딩 스미스 생전시 행해진 연설.



존 에이치 반덴버그 장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하와이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낯선 하와이 소녀가 우리 일행에게 다가 와서는 양팔을 높이 쳐들고 인사를 하고서는 두 손가락을 높이 들어 V자를 그려 보였습니다. 내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물었더니 그녀는 활짝 웃음면 얼굴로 “평화”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고속 도로를 달리면서도 우리는 자동차를 탄 젊은이들이 유리창을 통해 같은 표식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벽이나 담장이나 도로에서도 평화라는 말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자동차에서까지도 그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인이 평화라는 것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한 평화가 오늘의 평화와 다르겠습니까? 평화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유행입니까 아니면 성취하기에 결단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구세주께서는 이것을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보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는 그들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권고했고 진리의 영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성신을 말하며 그가 그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15~27 참조)

구세주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세상은 어떤 종류의 평안을 안겨 줍니까?

확실히 많은 사람이 평안을 갈구하고 있으나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길 즉 탐욕, 야심, 질투, 분노, 자만의 길을 쫓고 있으면서 평안을 바랍니다. 분명히 평안의 대적은 이기심이며 지상에서 재물을 쌓으려는 욕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구세주께서 주신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누가복음12:13~21)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계명대로 생활하는 것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매일을 살아 간다면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우리 생활에 깃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심을 쏟고 가장 필요한 일들은 잊고 있지 않습니까?

헨리 데이비드 토로¹는 “발덴”이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 속에서 나날을 보낸다. ...대개의 경우 향락이라든지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많으며 인류를 승화시키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죠수아 리브먼은 그의 저서 “마음의 평안”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집이 있고 재물이 있고 가족이 있지만 인생이란 마라톤 경기에서 다른 주자에게 황금의 테이프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한갓 재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보일 경우가 있다. 그것은 그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

람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인 것이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기의 실제의 업적을 최소로 줄이는 것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의 가족과 자신의 존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이 얼마를 가졌던 개의치 말아야 할 때가 왔다. 나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를 물으면서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과감히 고쳐가려고 한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세운 목표를 빌리지 않고 내 자신의 목표를 세우겠다. ...”

나는 이러한 점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젊은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물질적인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타인에 대한 권력이나 지배를 좇는 야망이 평안 대신 좌절을 초래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역사는 야망에 찬 인간의 흥망성쇠를 잘 알려주고 있으며, 국가간의 적대 행위를 떠난 일시적인 안전 상태에서도 항상 평화를 갈구하는 소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번만 싸워야 한다고 싸운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백과사전의 통계는 기원전 1946년부터 서기 1861년까지 사이의 평화지속 기간은 불과 227년인데 비해 전쟁 기간은 3130년이라는 사실을 밝혀 줍니다. 개인적이건 집합적이건간에 야욕이란 평화를 달성하는데 저해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전반적인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권력의 대열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대개는 대치할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화란 서명을 한다거나 조약문을 작성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개개인이 구세주의 계명을 지키는 노력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러한 평화를 즐길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일에만 분주히 지내거나 한가롭게 앉아 있는다고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서 어떤 때는 자신과 가족을 돌보고도 여러분의 시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평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일만큼 내심의 평안을 빨리 가져다 주는 길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참으로 인간의 마음에서 탐욕과 야심, 질투, 분노, 자만을 추방해 준 예는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미대륙을 방문하신 후에 그러한 때가 있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모두 개심하여 주께로 돌아 왔고, 백성들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한 저들은 저들의 온갖 소유를 공유하였던지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속박된 자나 자유로운 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자유로웠고, 저들이 모두 하늘의 은사를 받았으며,

“예수의 제자들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행하며, 저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절름발이를 걷게 하며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등...

“주가 저들을 땅에서 크게 번영케

1. 토로, 헨리 데이비드(1817~1862) 미국의 자유주의 철학자 겸 작가.

하십니까...

“이제 보라 니파이 백성들이 강대해지며 크게 번성하고 심히 아름답고 복된 백성이 되어,

“저들은 시집가고 장가들어 주님께 서 저들과 맺으신 언약대로 풍성한 축복을 받았으며,

“다시는 모세의 율법의 의식과 율례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 저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좇아 살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듣기를 계속하였고,

“온 땅에 거하는 만백성들 간에는 분쟁이 일지 아니하였고 예수의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 온 땅에 불화가 일지 아니하였고,

“시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것을 범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이 이들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으니,

“도적이거나 살인자가 없었고 레이맨인이라든가 혹은 다른 족속의 차별이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한 덩어리가 되었더라.

“주가 저들이 행하는 대로 날날이 축복하시니 저들의 복됨이 어떠하겠느냐. 저들이 이같이 복을 받아 번영하는 중에 백 십년이 지났으니, 그리스도가 오신 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도록 온 땅에 불화가 없었고,

“이 마지막 판을 기록한 니파이가... 팔십 사년을 두고 기사를 기록하는 중에 소수의 무리가 모반하여 교회를 떠난... 일이 있었을뿐, 땅에는 평화가 계속되었으되...

“이같이 이백년이 지나매...” (니파이사서 2~3, 5, 7, 10~11, 12~13,

15~20, 22)

근 삼천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백성들만이 평안과 사랑, 행복, 번영 등을 누렸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이 물문경에 자신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최대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볼 수 있는 평안과 기쁨, 발전, 자유의 삶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전쟁, 파괴, 투쟁, 범죄, 부정으로 둘러 싸인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던 어느 젊은 소녀는 자기가 방황하던 혼란으로부터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 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그러한 길을 가르쳐 준 사랑에 찬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세계에 살다가 영생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 지상 생활을 하러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 알고 있습니다. 이 지상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계획을 믿음으로써 지식을 얻고 의를 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는데, 이것으로 영생은 물론 지상 생활 가운데에서도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예언자를 통하여 평안으로 인도하는 삶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 들입니다. 이기심, 질투, 분노, 자만을 포함한 인간 세속적인 만족감에 대한 동경은 영적인 이상과 대치되어야 하

는데, 이는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영원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러한 지식과 삶의 방법을 통해서만 개인이나 국가가 바라고 갈구하면 평안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그토록 평화를 갈구하는 오늘날의 세대에게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화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자 하는데, 이는 우리 개인의 평안과 나아가서는 세상의 평안이 다 우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실천하도록 노력하며 생활에 옮기고 지지하고 마음속에 먼저 그것을 확립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훌륭한 대회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의 잔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언자의 위대한 메시지로 가슴이 벅차 있습니다. 우리들은 훌륭한 형제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을 마음껏 받았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간증의 순서로 들어가서 나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해롤드 비이 리 부대관장과 앤 엘튼 태너 부대관장, 십이사도 정원회와 축복사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예언자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어떠한 것이든지 이를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멘. ㉠

람은 여러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찾아 와야 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주의깊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축복과 교훈을 줄 수 있게 생활해야 합니다.

나는 진실된 정의의 초석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범죄 그 자체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구세주를 따르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나 앞으로는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심각한 범법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더우기 보이지 않는 귀에다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 후에 보이지 않는 입술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회개를 완전히 하려고 큰 시도를 하거나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데 누가 여러분의 옆에 서서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러한 언덕을 혼자 넘으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척 힘이 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조용하게, 비밀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돕도록 성스럽게 임명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비밀이 지켜지는 예가 없다고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비밀히 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

습니다.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은 이렇게 약속한 거룩한 비밀을 절대로 배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임 되기 전에 예언자, 선지자, 계시자라고 성스럽게 불리우는 사람으로부터 신전의 꼭대기 방에서 그들 생활의 전모가 확인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며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계획이겠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파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며, 가족 단위로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파문이 된다 해도 세상의 종말은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참된 정의를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 계획의 진실됨을 믿는다면 파문이라는 큰 벌도 첫 발을 뒤로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엄숙하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합당하게 성임된 신권 역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는 바로 질서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는

율법으로 보호 받으며 율법으로 완전케 되며 성별되나,

“율법을 깨뜨리며 율법을 감당하지 못하며 도리어 제 마음대로 행동하려 하며 즐겨 죄 가운데 거하려 하며 온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율법으로나 자비나 정의나 심판으로 성별될 수 없나니, 그러므로 저들은 여전히 더러움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니라.

“모든 왕국에는 저마다 하나의 율법이 있나니,

“왕국은 많도다. 이는 왕국이 없는 공간은 없고 큰 왕국이거나 작은 왕국이거나 공간이 없는 왕국은 없음이니라.

“어떠한 왕국에나 제각기 한 율법이 있고 율법에는 다 어떠한 한계와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8 : 34~39)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말로 해서 이 조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나 이 목적을 위해 제정된 합당한 신권의 절차에 따라서 범법 사실을 시정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께 받아 들여지지 못할 자이며 결코 그의 옆에서 함께 삶을 누리지 못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율법을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㉞

아론 신권 — 튼튼한 기초

아론 신권의 봉사가 어떻게 젊은이들로 하여금 보다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가?



빅타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이토
록 훌륭하신 신권 형제들 앞에 설 수
있고, 교회 전체에 수 많은 신권 형
제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며
내 어깨에 놓여 있는 책임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은 벅차 올라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새로이 부름을 받았을 때
리 부대관장님께서서는 이 부름이 충격
적이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나는 대
답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충격적이
었다고만 말한다면 부족할 정도였습
니다. 나는 그 부름 자체보다도 그 후
에 남은 충격이 훨씬 더 심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미
래에 대한 큰 기대와 열정에 대해 확
신을 갖고 있으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
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
니다. 나는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
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이며 이 교회
의 머리가 되시고, 그는 오늘날 그의
예언자인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을
통해서 그의 교회를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말
씀하신 바와 같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만일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한다면 주님께서서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위해 나를 축복하시고 용
기를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러한 사실이 참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러한 부름을

받아 들일 용기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
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러한 성스러운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
을 생각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
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존 에이치 반덴버
그 감독의 지도로 일하던 과거 십 일
년 반을 생각할 때 정말로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덴버
제사 와드의 감독으로 있을 때 나의
스테인크 부장단의 일원으로서, 콜로
라도 주 덴버 스테이크 부장단의 같은
보좌로서, 그리고 관리 감독단에서
그의 보좌로서 일한 십년 동안 나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를 원했고, 여러분께서도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에게 감사함을
느꼈는지 알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나는 그의 보
좌로서 일한 것을 크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단의 제일 보좌였던 심프
슨 감독은 세계의 도처에 있는 사람
들이 보여준 그에 대한 사랑에서도
증명되듯이 교회를 위해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는 꾸밈이 없는 사람
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해
온 훌륭하신 두 대제사께서 관리 감
독단의 보좌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좌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기도로서 주님의 영감을 간구했
습니다. 나는 수백 명의 합당한 형제
들을 일일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
름을 받은 두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
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 첫 모임에서 들은 이 형제들의 간
증을 통해 이러한 것이 사실임을 확
실히 아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관리 감독단으로
서 책임을 맡음에 있어서 우리 하나
님 아버지께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합
니다. 우리는 다만 한 가지 마음뿐인
데 이것은 주님의 사업을 그의 방법
대로 그의 시간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교회가 바로 그의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의 일을 돕도록 부름을 받은
그의 종입니다. 관리 감독단은 전 세
계의 신권 형제의 머리가 되는 대관
장단의 지도를 받아 일을 합니다. 그
들의 지시와 위임을 통해 관리 감독
단은 전 세계 아론 신권의 머리로서
일하게 됩니다.

아론 신권은 소신권입니다. 그것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준비하는 준
비 신권입니다. 그러므로 관리 감독

단의 책임은 젊은이들에게 벨기세텍 신권을 받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도움으로써 벨기세텍 신권 회장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막 시작된 영적인 수련 장로 프로그램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장로 정월회 회장단에게 영적인 복리가 맡겨진 훌륭한 성인 아론 신권 소유자나 미성임 회원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형제들에게 큰 축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아론 신권의 장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생각할 때 어린 소년 시절의 일이 회상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아론 신권을 통해 나에게 내려 주신 많은 축복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나는 캐나다의 앨버타 스테이크 카드스톤 제2 와드에서 집사로서 성찬을 전달하던 기쁨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똑같은 기쁨을 나는 쉘트레이크 신전에서 열리는 주례 총관리 역원 모임에서 성찬을 전달하면서 느낍니다.

나는 그토록 성스러운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부모님께서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 거룩한 의식에 임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받은 가장 큰 교훈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모범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나의 집사 정월회 고문이었을 때 그는 또한 나의 소년대 대장이었습니다. 벤 우드 형제는 소년이 본받아야 할 훌륭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지도를 받는 소년들은 누구든지 그의 위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의 역량은 일요일 아침이나 목요일 저녁에 국한되지 않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의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나는 열 두살 된 집사인 나에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생의 교훈을 주신 나의 집사 고문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내가 열 두살에 가졌던 것과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 두살이전 그 이상이전 이러한 훌륭한 것들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각 소년이 출발해야 할 기초는 각자가 참으로 거룩한 뜻을 마음에 지니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부터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나 여러분들은 좀더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이름으로 행동할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게 하지는 않으며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의 신권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 위대한 축복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서 보다 여러분에게서 기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 신권 때문에 오는 큰 축복을 알고 이 신권을 존중하며 이로써

자신의 훌륭한 삶의 터전을 세우는 교회의 아론 신권 청소년들을 만날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나는 미국령 사모아 파고 파고 스테이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인 피터스 형제께서 어느 와드의 성찬식에 나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불시에 도착했으므로 미리 준비한 특별 순서가 없었습니다.

매우 후덥지근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잘 것 없고 통풍시설도 안된 한칸 자리 예배당에 서자 마자 상의를 벗었으면 좋겠다고 제의했습니다. 피터스 부장님께서서는 이 스테이크에서는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주님께 대한 경배의 뜻으로 정장을 하므로 옷을 벗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스텐드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성찬대에는 집사와 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셔츠와 타이와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날씨는 더웠고 습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섬 사람의 부장은 매우 평범합니다만 이 성스러운 성찬 의식에 참석하는 훌륭한 사모아 지도자나 아론 신권 소년의 부장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외모가 주님께 대해 갖는 존경심을 나타내 준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 모임에서 그들이 보여준 경건성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그들 태도는 그들의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몇년 전 어느 날 나는 브라질 상파울

로에서 있었던 아론 신권 성구 암송 대회 결승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회는 웨인 백 선교부장의 감리하에 거행된 선교부 대항 최종 결승전이었습니다. 스탠드 위에 심사위원으로 앉은 사람들은 지방부 보좌들이었습니다. 출전자들이 예배당안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호명과 동시에 그들은 심사위원 앞으로 나와서 심사위원이 고른 성구를 모두 외우고 각 성구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마치 농구나 축구 구경을 하는 사람처럼 이들 아론 신권 행제들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대회에 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장소는 협소했으나 모임만은 훌륭했습니다. 성구를 생활의 일부로 삼은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월남 다낭에서 있던 군인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전투복을 입은 한 군인이 나에게 다가 와서 그날 자기에게 내려진 큰 축복에 대해서 비회원인 자기의 부모들에게 편지를 써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브라운 감독님 오늘 아론 신권의 제사직에 성임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시에서 용모가 수려한 젊은이가 “유대인으로 몰몬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칩체를 받자 가족들은 몹시 불

쾌하게 여겨서 정식으로 장례까지 지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이 죽었다고 여길 것입니다.

아론 신권의 모든 젊은이가 신권 소유자로서 그들의 책임을 인식하고 벡케이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끝으로 아버지, 감독, 기타 아론 신권 지도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 감독단은 형제애와 사랑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위해 여러분과 손을 마주 잡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 오늘날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특별한 영인 이 세대의 영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저지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온 이 세상은 아직도 악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은 아직도 그의 무리들과 열심히 계락을 꾸미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이끌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그들에 대해 성스러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 가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칩체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


물려 있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 : 25, 28)

첫번째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입장은 부모나 가족을 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은 제사 정원회 회장단을 구성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지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관심을 바라는데 이는 여러분께서 특별한 축복으로 특별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시간을 들여서 젊은이들의 문제를 보살피고 그들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 확인한다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에게 시온산의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와드나 지부 내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지원을 여러분이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훌륭하신 여러분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며 단합되고 열의에 찬 지도력을 통해 우리가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권을 존중하게 하고 이로써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도 잃지 않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모범을 보임

성실한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주님께 대한 봉사정신을 키워주나?

지난 목요일 저녁 사무실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장거리 전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리 부대관장님의 비서입니다. 리 부대관장님과 태너 부대관장님께서 형제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은 통화를 할 수 없겠습니다. 저녁에 다시 전화를 걸겠는데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너무도 갑작스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하려던 일을 모두 잊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내 생애에서 가장 긴 삼십분간을 초조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며 부산하게 보냈습니다.

전화가 왔고 리 부대관장님과 태너 부대관장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임무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는 중에 대답도 제대로 못한 것을 이제 두 분께 사과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리 부대관장님께서서는 나에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관리 감독단

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피터슨 형제님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

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나 역시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고 지금도 모르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대로 잘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일에 예언자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귀한 사람을 불러 예언자의 옆에 있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들의 신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브라운 감독의 신뢰에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가 보좌를 선택하는 데 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를 위해 최선의 보필을 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끝낸 다음 나는 아내를 불렀으며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앉아서 이 일이 우리의 생활, 우리의 다섯 딸, 내 사업, 최근에 산 집 등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거의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 주신 신뢰,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영원한 반려자인 아내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녀를 지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주님의 부름이 왔을 때마다 그녀가 보여 준 성실한 태도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부름이 있을 후부터 나는 왜 어떻게 이러한 부름이 나에게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소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았으며, 아주 간단하고도 평범한 방법으로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황갈색 머리의 네 소년이 창문에 얼굴을 대고 메사 신전에 가지려고 차를 타시는 부모님께 손을 흔드는 모습을 거의 매주 본듯 합니다. 우리는 신전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며, 신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모릅니다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하신다는 것을 의심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에 서서 부모님이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우리를 이곳에 두고 가지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분이 가시므로 무슨 중요한 일이 신전에서 진행되고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 시절에 신전의 중요성을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15년 간을 워드의 서기로 일하셨고 매주 저녁 모임이 끝나 집에 오시면 으레 이 식당으로 들어 가서서 창문을 가리시고 그날 모은 십일조와 헌금을 책상 위에 놓고 정리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는 돈을 세시고 1전 5전 10전짜 리를 일렬로 나란히 정돈해 놓으신

다음 다리미를 가지고 오셔서 종이 돈을 다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네 어린 소년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으로부터 배운 것 하나는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최선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에는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이 소박한 사람과 그의 아내는 세상적인 부를 많이 갖지는 못했으나 간단한 경험으로 아들들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이 교회는 그의 교회이며 그는 그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 교회를 조직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러한 경험 때문입니다. 나는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㉞

*** 성도의 벗은 몰몬의 양식! ***

조셉 에프 스미스 : 가족과 세대차

아서 아아르 바셋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평생토록 독특한 외모를 지녔다.



세대차란 말이 자주 토론의 대상이 되고 부자간의 간격이 당연시되고 있는 시대에 사랑과 이해로 뭉쳐진 가정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8명의 자녀들에게 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사랑을 보여준 아버지인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가정이 바로 그 가정입니다. 교회가 가정, 가정의 밤, 일반적인 가정 생활의 가치에 상당히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재임 시부터였으며, 이것이 요즈음 다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스미스 대관장은 그가 주장한 가정 생활은 그가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맞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정이 제공해 주는 안전도를 예민하게 느낀 것도 바로 일찍 부모를 잃은 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대관장의 부친인 하이람 스미스는 그가 여섯 살이었을 때 폭도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하이람은 평생 동안 예언자 요셉의 지주가 되었고 요셉도 자신의 생명처럼 그의 형을 사랑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음이 고결하며 내 앞에서 올바른 것을 사랑 하므로”(교성 124 : 15)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평생토록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관계에서 나온 헌신으로 그의 부

친을 사랑했습니다. 카테지로 마지막 떠나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의 눈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후일에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셨습니다. “말에서 내리시지도 않고 아버지께서는 서있는 나를 끌어 올려 안으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시고 다시 땅에 내려 놓았으며, 나는 그가 떠나시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이 일이 있던 후 며칠 만에 공포의 밤이 찾아 왔습니다. “나는 그 살인이 자행되던 밤을 기억합니다, ……카테지에서 온 한 형제가 밤에 찾아와 창문을 두들기면서 ‘스미스 자매님 남편이 살해되었어요’ 라고 하며 어머니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일은 그가 여섯 살 때 생겼습니

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는 그날 밤의 불안과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년 후 조셉 에프 스미스와 그의 어머니는 많은 다른 개척자와 함께 대륙을 횡단해야 했으며, 이 여행 기간 동안 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에 관한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광야를 횡단하다가 그들의 소를 잃고서 생긴 일입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목격한 기도의 효력 중에서 최초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응답된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끼쳐 준 그때의 인상을 그는 평생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깨어보니 가장 아끼던 소들이 없었습니다. 조셉 에프와 그의 삼촌인 조셉 필딩은 아침 내내 잃은 소를 찾아 다녔으나 헛수고만 하였습니다. 피로와 낙심 속에서 그들은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들

은 소를 잃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데도 늦게 되므로 이를 찾아 나간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도와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메리 필딩 스미스 자매를 보았습니다.

기도를 한 후 이 젊은 개척자 어머니는 그의 남동생과 아들에게 아침 식사를 들게 하고는 잃은 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 다시 찾을 필요도



없다고 말리는 동생의 권유도 뿌리치고 그녀는 강가로 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소를 보았다고 말한 미조리 역마차에서 내린 목동과 동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강쪽으로 계속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몸을 강쪽으로 돌리면서 그녀는 동생과 아들에게 오라는 시늉을 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왔을 때 버드나무에 매여 있는 소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소들을 훔쳐다가 그곳에 놔두고 개척자들이 떠난 다음에 가져가려고 한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메리 필딩 스미스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마차 대장의 부당한 대우와 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개척대와 같은 곳에서 단체 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그런 곳에서는 험사리 마찰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소년단이나 군대나 소녀단에 참가해 본 사람도 이것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척단에서 마찰이 있었다는 것은 필연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경우의 의견 대립은 감독이 스미스 자매가 계곡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식량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사람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느낀 데서 생겼습니다. 마침내 그는 “도중에 가서 버려 두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메리 필딩 스미스 자매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곡까지 가겠다. 그러나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의 입씨름이 벌어졌고 그런 상태로 개척단은 떠났던 것입니다. 프랫 강과 스위트워터 강 중간 지점까지 순조롭게 행진했는데, 이 때 갑자기 스미스 자매의 말 한필이 독약을 먹은 듯이 땅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걸음으로 보아서는 완전히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면서 뺨뺨해졌고 모두들 죽어 간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땅이라도 꺼질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대장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행군을 멈췄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내 도움이 필요없다고 했지요. 당신은 우리 개척단의 짐이 된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나 그는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생과 제임스 라슨 형제에게 성별된 기름을 주고 환자에게 하듯 축복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의 애끓는 탄원은 응답되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소의 머리에 성별된 기름을 부었고, 손을 얹고 사탄의 멸망의 힘을 꾸짖었습니다. 소는 즉시 일어났고 수분

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다시 마차를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모든 대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들이 멀리 가기 전에 또 한 마리의 소가 쓰러져 같은 방법으로 일어났고 이런 일은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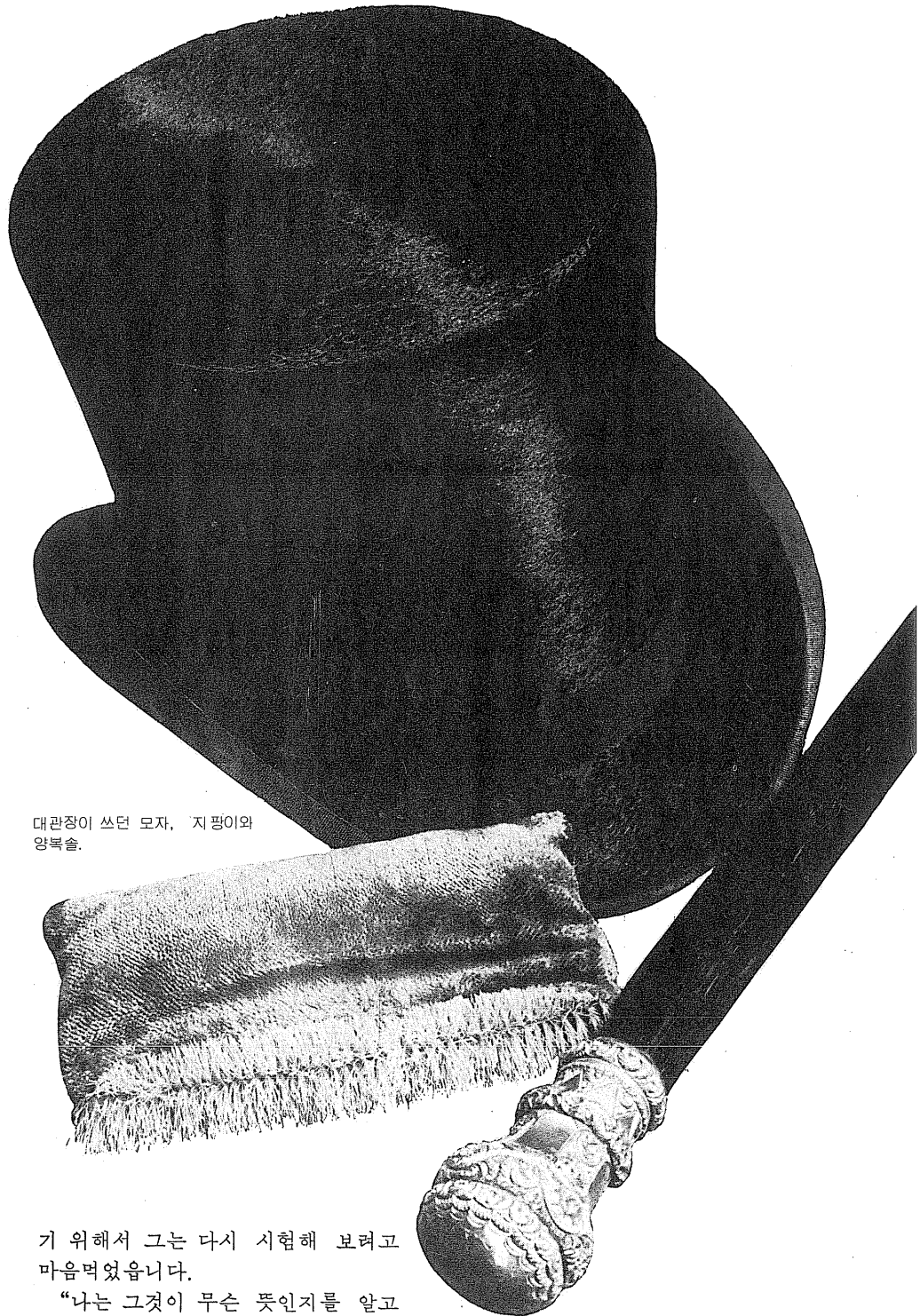
이 긴 여행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요셉 에프는 모두 목격하였으며 그의 삼촌을 통해 나타내진 신권의 권능을 인식했고 자신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친 어머니의 깊은 신앙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곡에 들어간 지 사년만인 그의 나이 열 네살에 그는 어머니를 잃게 되었으며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 다섯 살 되는 해에 그는 장로로 성임되었으며 선교 사업을 위해 하와이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서 그는 젊은이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질병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으로 그의 마음은 점점 깊어만 갔고 능력이 증진되어 영적인 통찰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 중에는 꿈이 있었는데 가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선교 사업을 하던 중 가장 낙심을 하고 있을 때 준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무지한 섬 사람 이외에는 친구라고는 없었습니다. 나는 한 소년으로서 가난과 지식이 부족함을 절감했기 때문에 사람을 마주 볼 용기조차 잃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골자가 되는 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어린 남자 아이를 소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았으며, 아이를 그에게 준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데려 갔고 그에게 인계하였으며 그런 다음 뒤로 몇 발을 물러났습니다. 이때 요셉 스미스, 하이람 스미스, 그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브리감 영이 그 아이 주위에 서서 축복을 했으며 예언자는 다시 아이를 요셉 에프에게 인계했습니다. 젊은 장로가 예언자에게 그 아이를 넘겨 줄 때 예언자께서 정말 그곳에 계신가를

알기 위해서 그의 손을 들어 예언자의 가슴에 매어 보았습니다. 다시 아기를 받으면서 꿈인지 생시인지를 알

다. 나는 그의 복부에서 온김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 의도를 아셨다는듯이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는 아이



대관장이 쓰던 모자, '지팡이와 양복술.'

기 위해서 그는 다시 시험해 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내 몸을 예언자 가까이 밀어 보았습니

를 다시 내게 인도하셨고 나는 어머니 무릎에 아기를 내려 놓았습니다.

“비록 나는 소년이었지만 그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이란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본 그 시현이 내가 주님 앞에 선량하고 깨끗하고 정당하게 설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의 말로 보아 이 경험에서 그의 주요 관심이 되었던 것은 그 당시 예언자에 대한 그의 간증이 강해졌고 커졌다는 사실임이 분명하나 그러한 꿈으로 누구든지 한 가지 자세한 사실을 목격할 수 있으니 즉 이것은 스미스 대관장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어린 아기를 전해 준 사실입니다. 스미스 대관장의 두 아들이 결국은 십이사도가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조셉 필딩 스미스가 교회의 대관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멀리 하와이의 산골에서 어린 선교사로서 받은 그 꿈에는 예언적인 일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생활과 시간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는 평생 동안 혼자 외롭게 지내거나 가족의 유대를 지너 보지도 못하게 버려지진 않았읍니다. 그의 나이가 이십이 되었을 때 그는 첫 번째 아내인 레비라 크라크와 결혼을 하였으며, 그후 얼마 되지 않아서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떠났읍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그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큰 위로를 삼았읍니다. 이 부인은 후일에 다섯 부인(당시는 복수 결혼을 실시하였기 때문에)과 마흔 여덟 명의 자녀와 함께 지냈읍니다. 그의 가족은 남달리 부유해본 적이 없으나 특별한 사랑으로 축복을 받으며 살았읍니다. 이러한 사랑에 얽힌 아름다운 추억담으로 그가 하루에 3달러의 급료를 받으며 살던 초기의 예를 들어 보겠읍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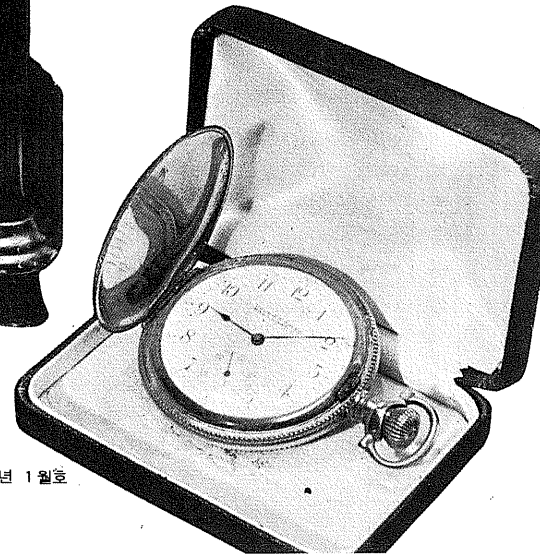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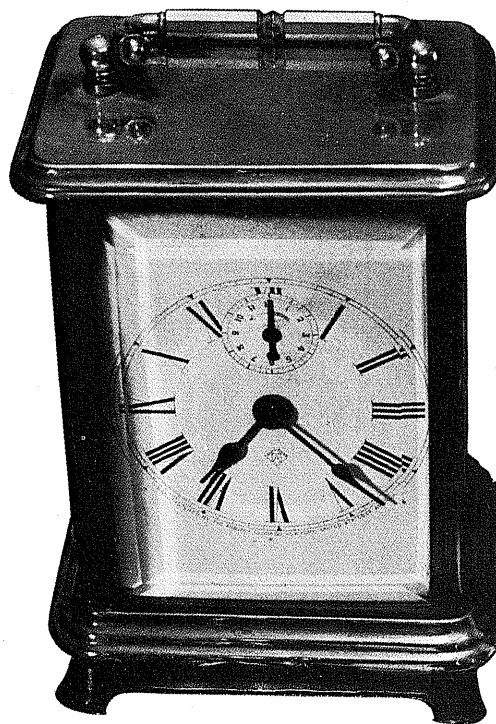
어느 성탄절의 경험은 뼈에 사무칠 정도였읍니다. 부족한 살림살이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느낌을 기록한 다음 그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사주기 위해서 성탄절 전날 밤 마을에 갔던 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읍니다.

“나는 아이들을 기쁘게 해 주고 싶었고 또한 평일과는 다르게 성탄절을 기념하고 싶었으나 주머니에는 일전한푼이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상가의 진열장만 구경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 속에서 북바쳐 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땅바닥에 주저 앉아 어린 아이처럼 울고 말았다. 얼마 후에 짐을 나갈 때처럼 빈 손으로 돌아와서는 아이들과 함께 놀았으며 이들로 인해 고마움과 행복감을 느꼈다.”

또 한 가지의 경험은 그가 극진히 사랑해서 “두두”라는 애칭까지 지어 준 장녀인 머시 조세핀이 죽었을 때

의 일이었읍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만우기가 되는 어린 두두는 세 살 때 죽었읍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그녀를 지켜보던 아버지는 그녀를 부둥켜 안아도 보며, 격려도 해 보고 잠을 못 이루는 그녀를 안고 흐느껴 울기도 했읍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빠 오늘 밤은 잘게요”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는 어쩔줄 몰랐읍니다. 그 말을 한 직후 그녀는 죽고 말았읍니다. 당시에 그의 슬픔은 아내인 에드나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 외에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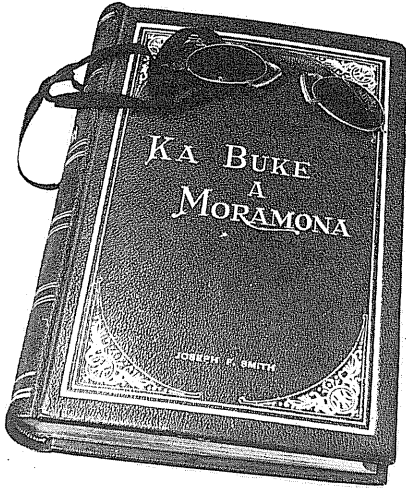
“나는 도저히 아무 것도 쓸 수가 없소. 지금까지도 내 마음은 아프고 정신은 혼돈되어 있대요. 하나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 밖엔 할 수가 없소. 내 심령은 쓰라린 슬픔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으며 내 가슴은 산산 조각이 나는듯 하오. 나는 파멸되고 내 가정도 황량하게만 보이는구료. 내 사랑하는 두두는 가벼웠대오!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소. 찾아 보았으나 찾지 못했오. 아무 소리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이름난 스미스 대관장은 몇년 동안 이 시계를 사용했다.

도 듣지 못했다고. 방 안을 헤매었으나 나 혼자였오. 나는 정원을 걸어 보았고 집 주위를 이곳 저곳 둘러 보았지만 금빛 머리, 빨간 볼, 뛰놀던 발자국은 찾을 수가 없었오. 사랑으로 반짝이던 검은 눈동자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구로. 달콤한 목소리

스미스 대관장이 쓰던 안경과 하와이판 물문경



대관장은 가족과의 아영을 즐겼다.



대관장의 서명

로 질문하던 모습, 목을 겨안은 보드라운 양팔, 장미꽃 같은 아름다운 입술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쓸쓸하게 텅빈 의자만 남았구로. 작은 장난감, 입던 옷, 쓸쓸하고 황막한 마음만이 남았구로. 사랑하는 두두는 가고 없구로. 정말 미칠 것만 같은 이 심정을, 내 마음의 빛이요 기쁨인 그녀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하나님은 아시리.”

스미스 대관장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그녀가 죽은지 46년 후에, 그의 일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첫 아이 머시 조 세핀이 태어난지 49주년이 되었다. 아홉달고 똑똑했던 어린딸 인, 그녀는 1870년 6월 6일 세상에 태어난지 3년 만에 그때까지 나의 생애에 가장 달콤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웠던 3년의 추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사랑과 빛의 천사인 그녀를 내가 얼마나 귀여워 했던가!”

어떠한 세대차가 그와 같은 사랑의 흐름을 방해하겠습니까? 주님의

예언자가 된 직후 쓴 스미스 대관장의 다음과 같은 말씀의 성실성과 중요성을 누가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가정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이 존재할 수 없으며, 가정의 힘을 거룩하게 하고 보존하려는 모든 노력은 가정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고무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정의 생활을 다른 어떤 것과 대치하려고도 시도합니다. 그들은 가정이 제약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최선의 자유란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없이 행복이 있을 수 없으며, 가정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며 가정 생활을 원활히 해나가는 것보다 더 큰 봉사도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사회 복지의 중요한 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 빠지나 그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란 피상적인 것이며 그 결과는 만년의 실망 뿐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약력

11월13일	나이	
1838	-	미조리 파워스트에서 탄생
1844	6	아버지 하이람 스미스의 순교
1846-48	8-10	소 마차를 몰고 평원을 횡단함.
1852	14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가 됨
1854-57	16-19	하와이에서 선교사업을 함
1859	21	레비라 에이 스미스와 결혼. 솔트 레이크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으로 부름을 받음.
1860-63	22-25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65-74	27-36	지역의회 대의원
1866	28	사도와 대관장단 보좌로 성임
1874-75	35-37	유럽 선교부장
1877	39	유럽 선교부장 (2 차)
1880	42	존 테일러 대관장의 제2보좌 역임
1884-91	46-53	미국 남서부, 멕시코, 하와이, 캐나다, 미국 동부에서 선교사업
1901	63	대관장이 됨
1906	68	유럽을 여행한 최초의 대관장이 됨
11월19일		
1918	80	서거

십이사도 총관리 역원

70인 제일 장로 정원회의 부르스 아아트 맥몽키 장로(57세)가 부름을 받아 십이사도 정원회가 완전히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새로운 십이사도 보조 3명을 포함, 4명이 교회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프로보 출신의 교육가인 렉스 데이 피네가(40세) 장로가 맥몽키 장로의 후임으로 70인 제일 장로 정원회의 일원이 되었다. 피네가 장로는 노스 캐롤라이나-버지니아 선교부장이었다. 그 전에는 주일학교 본부 임원으로 봉사한 적도 있다.

새로운 십이사도 보조는 다음과 같다.

— 오우 레슬리 스톤 (69세). 십이사도 지역 대표였으며, 솔트레이크 신전장, 오클랜드-버클리(캘리포니아) 스테이크 부장으로 일한 바 있다.

— 제임스 이 파우스트 (52세). 십이사도 지역대표였으며, 카른우트(유타)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했다. 유타주 지방 검사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 엘 린 페리 (50세). 마사츄세츠 주 웨스턴 출신으로 보스턴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 사업가.

이들 총관리 역원은 새로 조직된 대관장단이 지지를 받은 대회의 성회에서 지지를 받았다. 이 성회는 제 142차 반연차 대회의 첫 모임으로 리 대관장님의 사회로 인도되었다.

따라서 십이사도 보조는 18명이 되었는데 이는 1941년 처음으로 5명이 지지를 받은 이래로 제일 많은 인원을 기록하게 되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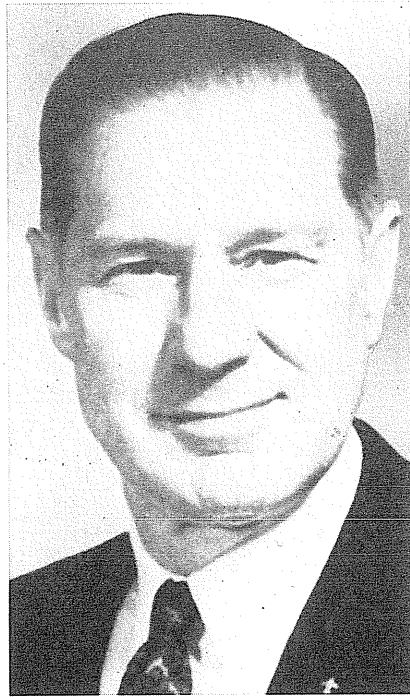
12사도 정원회 부르스 아아르 맥콩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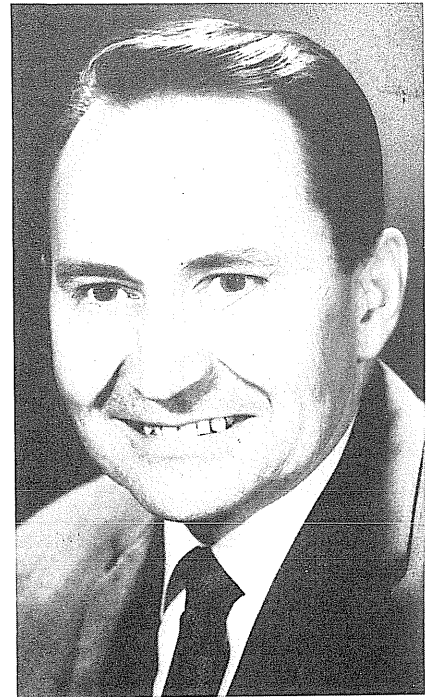
70인 제일 장로 정원회 렉스 디 피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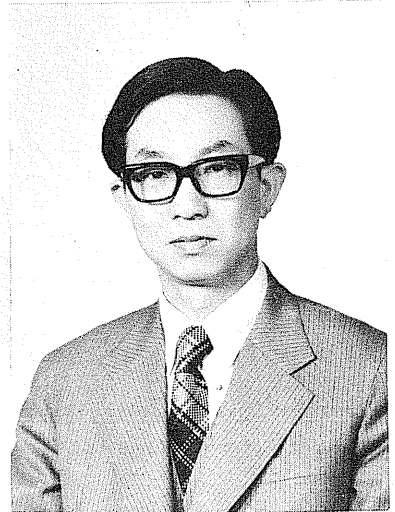
십이사도 보조 오우 레슬리 스톤



십이사도 보조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보조 엘 톰 페리



이 호 남

기도의 생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니 그렇지 않으면 늘어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 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누가복음 18: 1-8)

이것은 “불공평한 판사” 또는 “성가신 여인” 등으로 알려져 있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으로서, 주후 31년 봄 갈릴리 해변에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과 특히 타는 듯한 강렬한 기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쉽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 너희중에 아버지 된 자누가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누가복음 11: 9-13)

왜 주님께서서는 “불공평한 판사”의 예를 들어 뜻을 전하고자 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왜 우리들의 기도가 항상 즉시 응답되지 않는가를 가르치며 하나님에게 향한 사람의 기도는 성실성과 강렬함이 절대 필요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늦는다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경우 어떤 좋은 결과를 갖어 오겠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1. 갈망은 더욱 더 강렬한 기도를 갖어 옵니다.
2. 끈덕진 기도는 보다 강한 신앙을 갖어 옵니다.
3. 자기 반성과 영적 투쟁은 보다 풍부한 영적인 상태로 이끌어 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실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항상 호소하는 것이어야 하며, 성실성과 강렬함이 필요합니다.

판사에게 여러번 요청을 하여 뜻을 이룬 여인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축복을 주시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게 기도로 간구하기를 권합니다.

기도를 중단한 성도는 축복을 거절한자며, 번민과 괴로움으로 자신을 비참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

